국립극장 미르
NT OF KOREA MAGAZINE MIR

국립무용단 젊은 창작 프로젝트

넥스트 스텝



2018 03 Vol. 338

CONTENTS

03
받은 편지함

05
오브제
악보 박혜은

07
칼럼
예술을 더불어 즐기는 마음 홍기원

SPECIAL

국립무용단 젊은 창작 프로젝트 '넥스트 스텝'

10
정소연·김병조·이재화
경계에서 삶과 미래를 보다 김정은

14
담당 PD가 기록한 '넥스트 스텝' 제작노트
우리만의 방식으로 묵묵히 구슬

16
무용수에서 안무가로 '직업 전환'
무용수에서 안무가로, 그 전환의 기록 황수현

VIEW

20
프리뷰 1
국립극장 NT Live
'예르마'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
'오래된'이 아닌 '오랫동안'의 가치 최재훈

24
프리뷰 2
국립국악관현악단 '리컴포즈×상주작곡가'
지금, 오늘의 작곡가들 정우정

30
프리뷰 3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김준수의 수궁가–미산제'
본연의 길을 다시금 다지다 김기형

32
프리뷰 4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봄처럼 반가운 시작 박근희

34
예술가의 초상
국립창극단 김지숙 김태희

「미르」는 국립극장에서 발간하는 월간 공연예술 교양지입니다.
'미르'는 '용龖'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용처럼 힘차게 우리 민족의 문화예술을
지키고 발전시키며 세계에 널리 전파하겠다는 국립극장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르」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 필자의 글은 국립극장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르」는 국립극장 홈페이지와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조인스 디지털가판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GUIDE

41
3월의 기대작

44
문화나들이

48
국립극장 이용 안내

MIX

50
세계무대
전시 '오페라-열정, 권력 그리고 정치' 관람기
400년 오페라 역사를 만나다 **황정원**

54
시즌인문학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의 작품 세계
자연, 본능, 자유와 좌절의 기록 **안영옥**

58
우리 시대의 작곡가
김희조(1920~2003)
'국악과 양악은 김희조를 통해 만났다' **송현민**

62
예술서적
'박철수의 거주 박물지'
몸으로 살아낸 집의 기억에 맥락을 붙이다 **박사**

NTOK

64
예술배움
국립극장 창극아카데미 최여림 연출가
모두가 예술 안에서 행복하길 바라며 **박효린**

67
포스터 한 장
90 송년 통일전통음악회 **설인재**

68
국립극장 소식
국립무용단 '리진' 이데일리 문화대상 무용부문
최우수상 수상 외

71
극장사람들
국립국악관현악단 악보계 배새롬
그녀의 이중생활 **박혜은**

72
맺음 **전강인**

표지 국립무용단 젊은 창작 프로젝트 '넥스트 스텝'
표지 사진 전강인

발행인 김재숙(극장장 직무대리)
편집부장 하윤진 yjha94@korea.kr

기획 및 편집 박혜은 sfacntok@korea.kr
사진 전강인 infp7@korea.kr
ISSN 2287-6383
발간등록번호 11-1371032-000006-06
발행처 0462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극장
발행일 2018년 2월 26일

통권 338호
편집실 국립극장 홍보팀
전화 02-2280-5893
이메일 magazine@ntok.go.kr
편집·제작 오니트(주) 02-337-3690

국립극장 | 국립무용단

넥스트 스텝

NEXT STEP





2018
3.15
—
3.17

안무 정소연 I 김병조 I 이재화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7-2018

일시
3.15(목)-17(토)
평일 8pm
주말 3pm

장소
국립극장 | 달오름

예매 및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인터파크 1544-1555
티켓링크 1588-7890

티켓가격
전석 20,000원

「미르」는 모든 독자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춘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는 '라이언 맥긴리 컬렉션' 사진집을 봤습니다. '국립무용단 이재화' 기사를 읽고 있으니 문득 '청춘'이라는 단어와 함께 그 사진집이 생각나네요. 젊은 무용수 이재화의 열정과 생기 가득한 무대가 매우 기대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강상철 님(독자엽서)



많은 국악곡을 창작한 개척자이자 국악의 체계 정립 및 보급에 힘쓴 김기수 작곡가는 국악계의 거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곡가 시리즈처럼 우리나라 굿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싶습니다.

정창재 님(독자엽서)



두 젊은 예술가의 스토리가 실린 '소녀가' 기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신창극의 주제도 신선하고 앞으로 국립창극단의 공연이 기대됩니다. 매월 구독하고 있는 「미르」가 더욱 대중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선 님(독자엽서)

「미르」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자엽서와 이메일(magazine@ntok.go.kr)은 물론 국립극장 홈페이지·네이버 매거진캐스트를 통해 공연에 대한 감상이나 국립극장과 「미르」에 바라는 점 등 의견을 보내주세요. 글의 분량이나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의견이 채택된 분께는 공연 초대권을 비롯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당첨자 연락을 위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국립무용단

향연

The Banquet

이것이 우리의 춤이다

2018
6.6
|
6.9

안무
조흥동

연출
정구호

협력안무
김영숙 양성옥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7-2018

일시 **2018.6.6(수)–6.9(토)**
평일 8pm 주말·공휴일 3pm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티켓가격
R 7만원 S 5만원 A 3만원 B 2만원

예매 및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예술의전당 02-580-1300
인터파크 1544-1555

아름다운 자국만 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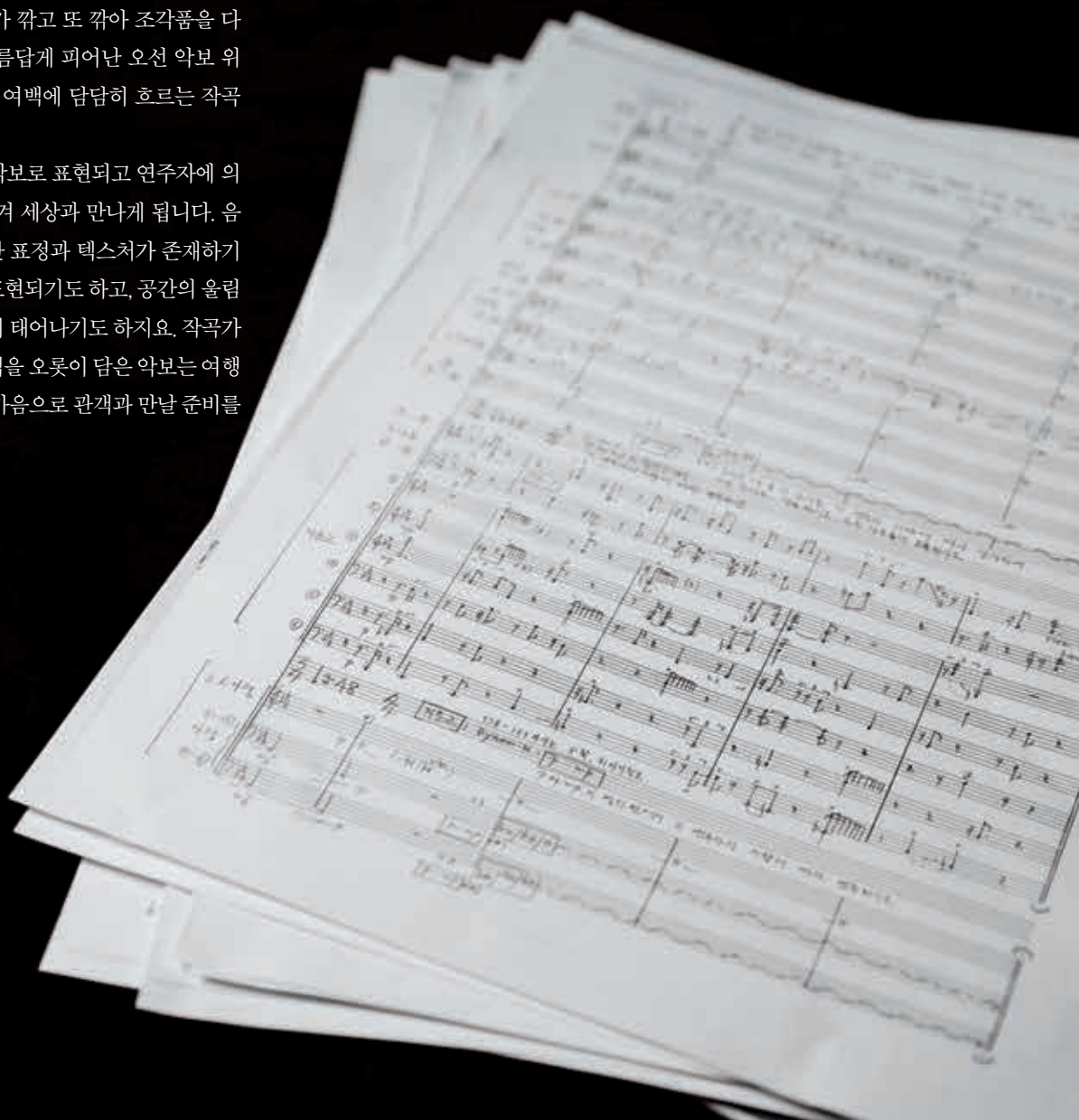
악보

"나는 악상을 악보로 옮기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어느 때는 하루 종일이라도 머릿속에 품고 있곤 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것은 버린다. 내가 만족할 때까지 반복한다. 그러고 나서 나는 작품을 정밀하게 다듬는다. 악곡의 이미지를 모든 각도에서 보고 듣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조각품과 같다. 그러고 나면 이 곡을 악보로 옮겨 적는 일만 남게 된다." – 베토벤

작곡가만이 남길 수 있는 흔적, '악보'. 적고 지우고 고치고 또 고쳐 땀과 고민을 고스란히 담아낸 결정체. 미술 작품에 작가의 화풍이 묻어나듯 악보에는 작곡가의 내면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조각가가 깎고 또 깎아 조각품을 다듬듯 작곡가의 손을 거쳐 아름답게 피어난 오선 악보 위 음표와 부호들, 그리고 그 뒤 여백에 담담히 흐르는 작곡가의 고민과 기쁨의 한숨.

보이지 않는 음악의 음률은 악보로 표현되고 연주자에 의해 다시 악기로, 목소리에 담겨 세상과 만나게 됩니다. 음악에는 하나의 음에도 다양한 표정과 텍스처가 존재하기에 작곡가의 의도와는 달리 표현되기도 하고, 공간의 울림과 관객의 기분에 따라 새로이 태어나기도 하지요. 작곡가의 마음속 자취와 풍경의 흔적을 오롯이 담은 악보는 여행을 떠나듯 두렵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관객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 **박혜은** | 사진 **전강인**



국립극장 |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실내악 음악회

모던 국악 기행

Modern Trip to Regional Music World

음악으로 떠나는 여행

2018.4.13(금) 오후8시
국립극장 달오름

예술감독_임재원
작곡_배새롬
편곡_임교민
사회_문형희
안수련
출연_김정희
김형조
이정식
국립국악관현악단

관람료
R 30,000원
S 20,000원

예매 및 문의
국립극장
02 2280 4114
www.ntok.go.kr
인터파크
1544 1555
www.ticketpark.com
티켓링크
1588 7890
www.ticketlink.co.kr

주최_국립극장
주관_국립국악관현악단

2018
4.13FRI
8pm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7-2018

예술을 더불어 즐기는 마음

세종대왕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 중 한 명이다. 한 인물의 정치적인 업적은 당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문화적인 성취는 그 생명이 무한하다. 세종이 아무리 성군이었어도 현대인이 군주제를 동경할 리는 없다. 그러나 세종 시대의 문화예술적 성취를 기억하고 재해석하고 탐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한국 문화 정책의 기원을 연구하기 위해 살펴본 조선시대의 자료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점이 있다. 단순화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문화예술이 역사적으로 이목을 끄는 경우는 정치적 밀착이나 부조화가 두드러질 때라는 점이다. 정치 융성기에 문화예술이 더불어 번성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치 암흑기에는 문화예술이 억압을 받는다. 우리가 이른바 서구 역사에서 문화 발전이 있었다고 하는 시기는 로마나 르네상스와 같은 정치적 팽창과 번영이 이루어진 시기였고, 문화의 암흑기라고 하는 시기는 중세나 전체주의와 같은 정치적 암흑기였다. 이런 단순화한 도식에 따르자면 세종의 시기는 정치와 문화가 공조하며 발전한 때였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세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화를 정치의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조선 초기는 건국 후 왕권과 신권의 줄다리기 속에서 정치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왕권을 강화하려는 세종 입장에서는 건국 철학인 성리학의 정치 이념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통치 능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런 맥락에서 유교정치적 가치를 구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전략이 예악의 중요성을 복원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음악 이론서 '율려신서'를 읽은 세종은 음악 이론에 담긴 정치철학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예악 사상을 악가무라는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활동으로 구현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았다. 즉 문화예술의 정치적 차용이 중요한 통치수단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런데 세종은 예악 사상의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측면만을 통찰한 사람은 아니었다. 문화예술이 현실의 삶에서 인간에게 부여하는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 한국 고유의 예술인 향악의 발굴과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관료들의 반대로 처음에는 물러서는 듯하다가도 기어코 궁중의례를 위한 작품에도 향악의 작곡법이나 내용을 반영했다. 전국의 관아를 동원해 민간에 떠도는 노래를 채집해 그 내용이 정칙에 벗어난 것까지도 모두 찾아내어 조정으로 올려보내게 했다. 이러한 지시는 노래의 내용을 살펴 민중의 심성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익숙한 선율을 차용해 예악을 재정비하려는 것이었다. 악기의 정비에서도 중국과 다른 기후나 풍토를 근거로 해 조선에 맞는 황종률의 정비와 음의 표준을 설정했다. 당시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와 이를 따르는 소위 엘리트 관료들의 사고를 감안한다면 매우 혁신적인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세종의 문화정치가 단순한 문화정치로 끝나지 않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예술의 발전으로 평가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민주주의는 과거와 같은 문화정치 전략을 용납하지 않는다. 만약 용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권자가 주체가 되는 문화민주주의의 정치 행위일 것이다. 문화예술을 통치의 도구, 그것도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최근 너무나 선명하게 보았다. 문화정치 전략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세종이 궁 밖으로 행차할 때마다 새로이 창작된 음악을 연주하게 해 고을에 백성들이 이를 듣고 구경하느라 넘쳐나도록 하는 것, 그렇게 더불어 음악을 즐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남는다. 국가적 위상을 갖는 우리의 국립극장에 바라는 것도 시민이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예술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샘솟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글 **홍기원**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문화행정학과 교수. 문화예술 정책을 연구하며 한국 문화 정책의 역사와 이론적 분석에 관심이 많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의 객원편집위원으로 한국문화정책 특별호를 준비 중이다.



SPECIAL

국립무용단 젊은 창작 프로젝트
넥스트 스텝

10
정소연·김병조·이재화
경계에서 삶과 미래를 보다

14
담당 PD가 기록한 '넥스트 스텝' 제작노트
우리만의 방식으로 묵묵히

16
무용수에서 안무가로 '직업 전환'
무용수에서 안무가로, 그 전환의 기록



정소연·김병조·이재화

경계에서 삶과 미래를 보다

"예술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해본 경험이 이번 작품에서 드러날 거라 생각해요. 병조는 병조답게, 재화는 재화답게, 저는 저답게 각자 고민한 예술세계를 선보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국립극장 전속단체인 국립무용단은 파격적 행보를 바탕으로 성장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단체다. 최근 몇 년간 '국립'의 정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기반으로 한 한국 춤의 현대화를 뚝심 있게 밀어붙였고, 새로운 관객 유치라는 성공을 거뒀다. 패션디자이너 정구호가 연출로 참여한 '단'과 '묵향' '향연'의 성공에 이어 세계적 안무가 테로 사리넨이 안무 및 연출을 맡았던 '회오리'는 2015년 칸 댄스 페스티벌에 개막작으로 공식 초청돼 국립무용단 창단 53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런티를 받고 유료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국립무용단이 새해 첫 도전 프로젝트로 단원들에게 안무 기회를 주는 '넥스트 스텝'을 선택했다.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국립무용단 단원 정소연·김병조·이재화가 안무가로 변신해 각각 30분 분량의 공연을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무대에 올린다. 국립극장은 이들이 한국무용 기반의 차세대 안무가로 활약할 수 있도록 작품 개발의 전 과정을 지원했다. 무용수에서 안무가로 변신한 정소연·김병조·이재화를 만났다.

정소연, 예측 불가능한 순간에 맞닥뜨리는 소멸의 정서, 춤으로 승화

가장 선배이자 홍일점인 정소연은 이미 2005년 국립무용단 기획시리즈 '바리바리촘촘디딤새'를 통해 승무를 재해석한 '어떻게든'으로 안무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은 무용수다. 특히 2007년 국립무용단이 9명의 안무가를 선정해 소개한 '안무가 페스티벌'에서 당당히 신작 'Nice Fishing-!!'을 발표해 젊고 신선한 감각으로 호평받은 바 있다. 정소연이 이번 무대에서 새롭게 창작한 작품의 주제는 음악 용어 '싱커페이션syncopation·당김음'. 정소연은 작품에 대해 "죽음·욕망·인내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예측 불가능한 순간에 '싱커페이션'을 대입해 다양한 정서를 가진 우리 춤을 보여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사라지는 것, 곰삭은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껏 제가 살면서 해온 생각을 모아 주제를 잡아보고 싶었고, 자연스레 소멸이란 주제에 초점이 맞춰졌죠. 예상치 못한 시점에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소멸하는 것에 반응해야 하는 인간의 삶에 대해 춤으로, 음악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정소연의 안무작에선 훈련장 김미애를 비롯한 7명의 무용수, 5명의 연주자, 소리꾼 1명 등 총 13명의 출연진이 무대에 오른다. 음악 편성도 재밌다. 국악그룹 바라지 멤버들이 참여하고 재즈피아니스트 송지훈이 음악감독을 맡아 싱커페이션의 음악을 만들었다. "작품의 음악은 서양악기와 전통악기의 컬래버레이션을 추구하지만, 안무만큼은 우리 춤의 전통을 지키고 싶어요. 한국무용의 기본이 정말 좋거든요." 정소연은 관객에게 친절한 공연보다는 예측 불가능함이 멋을 더하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박보다는 엇박이나 그루브가 많은 라이브 음악 선율 위에 즉흥적인 춤이 만나 관객들은 예상치 못한 싱커페이션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김병조 "국립무용단 단원들의 삶과 청춘을 춤으로 버무렸어요."

김병조는 최근 국립무용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무용수 중 하나다. 지난해 국립무용단 신작 '춘상'에서 '몽' 역할로 첫 주역을 꿰찬 그는 올해 안무가로 '넥스트 스텝'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는 5월 LG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맨 메이드'에서도 조안무로 활약할 예정이다. 이력도 특이하다. 20대 시절 국립발레단 연수단원으로 각종 콩쿠르에서 주

정소연



목받던 발레리노였지만, 부상 이후 한국무용으로 전공을 바꿔 2011년 국립무용단에 입단했다. 시련을 딛고 다시 부활하기까지 숱한 시련과 역경을 피·땀·눈물 그리고 노력으로 극복했다. 그래서일까. 그는 이번 '넥스트 스텝'에서 무용수의 삶에 초점을 둔 작품을 들고 나왔다. 김병조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국립무용단 무용수로서의 삶을 주제로 한 작품을 준비 중이다. 그는 "국립무용단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단원이 한데 모여 있다. 연습실에서 몸풀기를 하다 이들의 청춘 시절에는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작품을 구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나온 시간이 다를 뿐이지, 색깔이 다르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선배들이 표현하는 색깔이 짙은 춤과 젊은 무용수들이 보여주는 춤의 결은 조금 달라요. 춤의 농도나 질감 차를 국립무용단 무용수들의 삶과 결부해 풀어내려 해요." 그는 구체적인 안무를 구상하기 전, 단원들을 직접 일대일로 만나 심층 인터뷰하는 시간을 오래 가졌다. "오랜 시간 봐온 단원들이지만 제각각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이번 계기로 알게 됐어요. 내년에 정년퇴직하는 분도 있고, 부모가 된 단원, 이제 막 입단한 젊은 단원 등 다양했죠.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예중·예고·예술대학을 나와 국립무용단 단원이 된 분은 휴가 때만 되면 스스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 사람들이 원한 삶은 뭘까'를 깊이 고민했고 그 결과를 안무로 풀어내기 시작했죠." 이색 아이디어를 던져준 단원도 있었다. 그는 "사전 인터뷰 중 어떤 단원이 '정말 할 이야기가 없다'며 괴로워했어요. 3일에 걸쳐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건질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러나 '집을 나와 무용단까지 오는 길을 생각해보세요'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매일 반복되는 출근 일상을 이야



김병조

기해주더라고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안무를 하면 재미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김병조의 작품에선 총 6명의 무용수가 등장한다. 음악은 국립국악원 정악단 출신의 그룹 '4인 놀이'가 맡았다. 한국무용이지만, 컨템퍼러리 공연을 지향한다. "춤출 때 한복을 입는 장면도 있고, 드레스나 원피스를 입고 나오는 장면도 있어요. 장르가 중요하진 않죠. 관객들이 공연을 보고 '나의 청춘은 이랬지' 하는 생각만 안고 간다면 성공한 작품이라고 봐요."

젊은 피 이재화, 칠채장단과 국립무용단 젊은 무용수들의 춤사위

이번 프로젝트에 선정된 안무가 셋 중 가장 막내인 이재화의 작품은 전통 농악의 칠채장단을 주제로 한다. 웃다리 농악을 대표하는 장단인 칠채를 춤·음악·판소리를 활용해 다각적으로 변주함으로써 전통 장단과 어우러진 우리 춤의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출연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스타 무용수 조용진·송설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웅녀로 등장해 주목을 받은 박혜지와 신입 단원 조승열이 무용수로 선다. 또 세 명의 안무가 중 유일하게 이재화만이 무대에 오른다. 예상치 못한 출연자도 있다. '국악계의 아이돌'로 불리며 국립창극단의 주요 작품에서 주역으로 활약하는 소리꾼 김준수가 그 주인공이다.

이재화 작품의 출발선상에는 칠채장단이 있다. "무용음악으로 칠채장단은 잘 안 쓰여요. 가무악으로 쓰였다거나 소리꾼들이 활용한 기록이 거의 없죠. 농악으로 쓰인 정도인데, 소리꾼·무용수·음악인이 한데 모여 칠채장단을 가지고 요리해보자는 마음에서 작품을 구상하게 됐어요." 이재화는 기타와 드럼 등 서양악기를 악기 편성에 넣어 새로운 칠채 음악을 가무악으로 사용한다. "무용수들의 춤을 보면서 '쟤네들 무슨 박을 타는 거지? 맞아떨어지는 점은 뭘까' 하는 생각을 갖고 유심히 보다 보면 묘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무용수로서 도전 의식

이재화



을 불러일으키는 장단입니다. 무용수들 몸의 리듬을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무용수 5명의 색깔이 저마다 다르다는 점도 이재화가 생각하는 작품의 포인트 중 하나다. 그는 "저를 포함한 출연 무용수들의 색깔과 개성이 저마다 달라서 관객 분들이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30대 또래의 무용수로 구성된 출연진은 때론 친구처럼, 때론 형제처럼 다독이며 작품을 완성해나가고 있다. "작품에 출연하는 동료들이 칠채장단에 집중하는 제게 '박자 성애자'라 놀리긴 하지만,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게 협조적이에요. 너무 고맙죠. 제가 안쓰러워서 그런지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함께 고민해주고, 든든한 존재들이에요."

무용수에서 안무가로 변화 "나무보단 숲을 보게 됐어요."

안무가로 작품을 준비 중인 단원 세 명 모두 무용수 때와는 마음가짐이 180도 달라졌다. 김병조는 "무용수로만 무대에 설 때는 디테일하게 몸을 만든다든지 무대에서 내가 돋보일 수 있는 춤사위가 뭘까를 더 고민했다면, 안무가로서는 안무·연출·무대·의상 등을 총괄해 작품을 대하게 된다"며 "큰 숲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막내 이재화는 "결정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했다. "매 순간 혼자 결정해야 할 게 많아요. 무용수일 때는 춤을 어떻게 출까만 고민하면 됐는데 안무가는 여러 무용수, 연주자 등의 의견을 들은 다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쉽지 않죠." 가장 선배인 정소연은 재밌는 표현을 빌려 안무가의 애로 사항을 전했다. "무용수일 때는 다양한 안무가가 만든 A 김치도 먹어봤고, B 김치를 먹어보고 맛을 음미했다면 안무가가 되니 직접 김장을 해서 남들에게 선보여야 하는 입장으로 바뀐 거죠. 막상 김장을 하려니 이 맛도 생각나고 저 맛도 생각난달까요. 결국 잘 발효시켜 정소연만의 손맛을 완성해야 하는 게 제게 주어진 임무죠."

글 **김정은**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 사진 **전강인**

담당 PD가 기록한 '넥스트 스텝' 제작노트

우리만의 방식으로 묵묵히

전통의 가치를 품고 있는 무용수를 통해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보다 가시적으로, 때론 우직하게, 때론 발칙하게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동시대적 공연예술의 창작이라는 미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은 아니다. 전통이라는 제법 품질 좋은 텃밭에서 재료를 찾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빚어내느냐, 그리고 내놓는 플레이팅 방식에 따라 작품의 맛은 천차만별이 된다. 그 오묘하고 다채로운 가능성으로 인해 자칫 낡고 고루한 이미지의 '전통'이라는 단어는 세월의 깊이를 품은 고품격 가치이자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품은 보고로 여겨지기도 한다. 국립무용단은 지난 몇 년간 다채로운 기획을 통해 그 다양한 가능성을 증명했다. 국립무용단의 젊은 창작 프로젝트 '넥스트 스텝'은 그중 작품을 빚어낼 '누군가'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시도다. 여기 '넥스트 스텝'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과정을 소개한다. 각 작품의 내용보다는 작품의 구상부터 완성까지 안무가들이 거치고 있는 약 4~5개월의 복잡다단한 과정을 보여주는 단편은 각 작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Step 0. 시작을 준비하다

화이트보드와 프로젝터 스크린, 3열로 늘어선 책상과 의자들. 국립무용단 연습실에는 사뭇 낯선 강의실 풍경이 연출되었다. 2017년 10월과 11월에 걸쳐 특강이 5회 진행되었다. 공연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전통과 창작에 대한 강의였다. 연출가의 창작 방식과 전통에 대한 개념 및 활용 방식, 무대·조명 디자이너가 작품을 시각화하는 과정과 작곡가가 제작에 투입되는 과정에 대한 강의는 단원들에게는 익숙하면서도 새로웠다. 다양한 주제를 놓고 열띤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국립무용단 전 단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특강들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 재료와 그것을 활용한 기존의 다양한 방식에 대해 연구해보는 시간이었다. 각자의 시선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둘러보기도 하고 시각을 확장해보는, 짧지만 제법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Step 1. 신중한 선택

지난 12월 초, 이번 공연의 안무가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지원 서류에 가시적인 계획을 담고 시연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심사위원에게 각자의 작품을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도전에 나선 이의 수도 제법 많아 지원자들 간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3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펼쳐진 지원자들의 열띤 프레젠테이션. 이를 평가하는 심사위원들도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 심사는 1시간이 넘게 진행되고 결과가 발표되었다. 세 편의 작품을 한 무대에 담아낼 계획이니 세 사람의 스타일이 각기 다른 색을 내도록, 관객에게는 한 공연에 세 개의 전혀 다른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그렇게 정소연·김병조·이재화라는 세 빛깔의 안무가가 선정되었다.

Step 2. 수많은 만남의 여정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모든 과정은 지난한 대화의 연속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제작 초반부터 안무가가 평론가·타 안무가·기획자 등과 작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데 비교적 많은 시간을 쏟고 지속적으로 '제3자의 시선'을 의식하고 작품을 객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3명의 안무가는 극장 내부에서 작품을 함께 만들어갈 예술감독·제작PD 그리고 무용수를 만났다. 국립무용단 내에서 무용수의 캐스팅이 완성되는 프로젝트의 특성상 캐스팅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을 수 없다. 이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얻은 작품에 대한 공감과 이해는 '넥스트 스텝'의 긴 여정을 이끌어가는 든든한 동력이 된다. 이어지는 만남은 극장 외부인들이다. 평론가 등 여러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관객참여단을 운영해 관객과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안무가들은 작품의 윤곽을 만들어내고 산발적이던 키워드들은 하나의 주제로 집중되고 응축되었다. 또 하나의 만남은 중간자들인 작품에 참여하는 객원과 다양한 스태프다. 이들은 제작 과정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의하며 동행해나가는 지원군이다. '넥스트 스텝'은 안무뿐 아니라 음악적·기술적 실험 등 다양한 시도에 열려 있는 도전적인 프로젝트이기에 각자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전문 아티스트와 스태프의 섭외 및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안무가가 홀로 오롯이 감내해야 할 작품에 대한 고민은 분명 있다. 하지만 작품이 무대 위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사람의 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제작의 특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연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안무가들에게 수많은 만남은 때론 멀미를 일으키고 때론 체증을 해소해주는 그 어느 중간 지점에 있는 듯하다.

Step 3. **고집스럽게 지켜가야 하는 것**

세 안무가의 작품에는 공통점이 많다. 세 작품 모두 국악기 연주자들이 포함된 음악을 사용하고, 같은 무대·의상·조명 디자이너가 투입되었다. 하지만 작품의 제작이 어느 정도 진행된 현 시점에서 보면 세 작품은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것이 작품을 이끄는 안무가의 고집이고 개성일 것이다. 작품을 구상하고 끌어가는 방식, 완성하는 방식과 표현하고 소개하는 방식에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정소연의 경우 각 장별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표현 방식에 집중하면서 자신이 고심해 짠 틀을 완성해나간다. 무용수의 삶을 소재로 작품을 구상한 김병조는 그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의견을 취합해 안무에 반영한다. 이재화는 '칠채'에만 집중한 만큼 그 요소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집요하게 실험하며 자신이 그리는 이미지를 완성해간다. 세 명의 안무가는 제작 과정에서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을 반복하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우직하게 지켜내며 작품을 완성해나가고 있다.

Step Next. **미래의 가능성을 위한 스텝**

국립무용단 젊은 창작 프로젝트 '넥스트 스텝'은 미래의 안무가를 양성하기 위한 초입 과정 어딘가에 위치한다. 우리는 안무가가 제작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의 전문적인 제작 시스템 보조하에 최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프로젝트가 안무가에게는 앞으로 창작자로서 작업의 스펙트럼이 확장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동력이 되어 지속적인 창작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넥스트 스텝'이다.

글 **구슬** 국립무용단 PD

무용수에서 안무가로 '직업 전환'

무용수에서 안무가로, 그 전환의 기록

안무가 머릿속의 원형을 '창작'하는 무용수, 다시 그것을 '제작'하는 안무가.
비슷할 것 같으면서도 다른 두 직업에 대하여

10년간의 무용단 생활을 마치고 안무가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무용수와 안무가는 '전혀 다른 직업'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이 간과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오해는 바로 무용의 장르적 속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직업으로서 프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무용수라면 누구나 스스로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자신만의 느낌으로 표현할 줄도 안다. 무용수가 만들어내는 움직임은 때로는 안무가의 그것보다 더 훌륭할 때도 많다. '만들고 표현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안무가와 무용수의 일은 비슷하다. 그러나 두 종류의 작업을 실행할 때 이루어지는 생각의 구상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비교해보자면, 안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만들어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안무자는 열린 구조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반면에 무용수는 이렇게 던져진 질문에 답을 만들어나가는 데 작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말하자면 맺음 구조의 작업이다. 오랜 시간 무용수로서 훈련해온 나는, 안무가로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생각의 구조를 바꾸고 나 스스로의 논리를 만드는 데 많은 자극과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안무 자체를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창작자 스스로 자기 자신의 논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보편적인 논리 안에서 작동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실험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 가운데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이 과정은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좀 더 협력적인 환경이 주어진다면 시간과 노력을 훨씬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무용수가 아닌 안무가의 작업을 충분히 이해하는 안정된 환경을 지원해준다면, 스스로 지속 가능한 창작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다양한 자극이 주어짐과 동시에 여러 아이디어를 실행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창작 작업에는 작품의 프로세스가 아닌 생각의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고 개인의 논리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어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창의적인 동기를 끊임없이 이끌어내는 안무가를 육성해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좋은 작품이 따라오는 것은 물론이다.

국내외 안무가를 위한 프로젝트 사례와 제작 시스템

나는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안무가 육성 사업에 참가해왔다. 국내외 안무가 지원 프로그램은 저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신진 안무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 2011년 한국공연예술센터의 '차세대 안무가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안무가들의 창작과 실험을 지원한 국립현대무용단의 '안무랩'과 2015년 인도와 해외의 활발한 예술 교류를 위해 'Attakkalari Centre for Movement Arts'(이하 아따깔라리 움직임 연구소)에서 지원한 국제 안무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 프로젝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좋은 경험이 되었다. '차세대 안무가 육성사업'은 8개월 동안 다양한 강의와 워크숍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창작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미학과 철학 강의를 비롯해 예술가의 글쓰기·프레젠테이션·무용실기·무용이론 등 안

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커리큘럼이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과정을 거쳐 제작된 작품들은 쇼케이스 형태로 무대에 올랐다. 여기서 선발된 작품은 '한팩 라이징 스타'에 선정되어 다음 해에 발전된 형태로 대극장 무대에서 공연되고 같은 해 도쿄 페스티벌에 초청되었다. 아쉽게도 현재 이 프로그램은 사라진 상태다. 국립현대무용단에서 진행한 '안무랩'은 작품이 완성되어 공연에 이르기까지 3개월간 멘토링과 제작비를 비롯한 전반적인 제작 시스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무용 외의 타 장르 예술가와 함께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 무용이 갖는 매체 특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었고, 또한 지속적으로 협업해나갈 수 있는 좋은 동료를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인도 아따깔라리 움직임 연구소는 인도 전통춤을 기반으로 인도 내에 현대무용을 널리 보급하고 젊은 안무가들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무용단 단원이나 무용단 출신 안무가를 비롯해 해외 안무가까지 10명으로 구성된 이 기관은 국내외 공연예술 교류의 플랫폼 구실을 하고 있다. 안무가의 창작 활동과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해외에서 초청한 전문가들로 구성한 멘토나 드라마트루기와 교류하면서 완성도 있는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아따깔라리 비엔날레(AIB) 기간에 진행되어 세계 각국의 프로듀서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나는 이곳에서 만난 프로듀서와 멘토의 초청으로 호주 멜버른 축제의 Special Combination 프로그램과 시드니의 Critical Path 레지던시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국내 국립 단체에서도 안무가 지원 프로젝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발레단의 'KNB 무브먼트 시리즈'와 국립현대무용단의 '스텝업' 등 단체별로 특화된 목적을 가진 안무가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무용단의 경우 이미 2001년 '바리바리촘촘디딤새'를 시작으로 '동동 2030' '엔톡초이스' 등을 거쳐 이번에 선보이는 '넥스트 스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왔다.


©Richa Bhavanam/ Attakkalari Centre for Movement Arts

국립무용단 '넥스트 스텝'과 안무가 육성 프로그램의 방향

이번에 내가 드라마트루기로 참여하는 '넥스트 스텝'은 국립무용단 자체에서 소속 단원에게 기회를 주고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의 협업자를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독특함을 가진다. 단체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가치를 공유하는 무용수를 위한 프로젝트인 만큼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안무가로 선정된 무용수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 사항을 검토하고 조율하며, 작업자들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향상시키는 등 안무가에게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넥스트 스텝'은 현장 중심의 협업자를 안무가와 연결해줌으로써 안무가가 한층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점이 특징이다. 안무가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 여러 협업자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사전 미팅을 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이를 직접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용수가 안무가로서 작업을 시작할 때 범하는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고, 이론과 실질적인 작업 사이에서 생기는 간극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러한 시도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자신의 논리를 구축하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면, 안무가가 본격적인 창작자로 성장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과거 한국의 무용교육은 대부분 무용수를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물론 창작을 유도하는 커리큘럼도 존재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향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무용수를 위한 창작은 몸을 다루는 방법이나 운영하는 능력, 즉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안무를 위한 창작은 배움이나 실천을 통해 알게 된 인식과 이해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단순히 역할을 바꾸어 춤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무용수가 훈련을 하듯 제대로 된 안무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용수와는 다른 커리큘럼 안에서 시간을 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망한 신진 안무가를 발굴하고자 만들어진 프로젝트에서부터 안무 경험이 있는 안무가에게 창작 역량을 넓히는 기회를 주고자 만들어진 프로젝트, 체계적인 제작 시스템 지원을 통해 레퍼토리 개발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 등 국내외 안무가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는 제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안무가'를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단순히 무용수의 연장선으로서의 안무가가 아닌,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직업'으로서의 안무가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화해나가길 바란다.

글 **황수현** 안무가.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안애순무용단 단원으로 활동. 무브먼트리서처·리허설 디렉터·드라마트루기 등 작품 제작 과정에 참여, 다양한 역할로 활동 중이다.



국립극장

National Theatre Live

A Young Vic Production

예르마

원작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연출 사이몬 스톤

★★★★★

빌리 파이퍼의 눈부신 연기

iNews

2018
3.27
|
3.30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7-2018

일시
2018.3.27-3.30
20:00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주최 | 국립극장
제작 | 영국 국립극장
영 빅 씨어터
티켓 | 전석 20,000원
관람연령 | 18세 이상

예매 및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인터파크 1544-1555
티켓링크 1588-7890

Photograph (Billie Piper) by Johan Persson

VIEW

20
프리뷰 1
국립극장 NT Live
'예르마'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

24
프리뷰 2
국립국악관현악단
'리컴포즈×상주작곡가'

30
프리뷰 3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김준수의 수궁가-미산제'

32
프리뷰 4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34
예술가의 초상
국립창극단 김지숙

국립극장 NT Live **예르마·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

‘오래된’이 아닌 ‘오랫동안’의 가치

2018년 국립극장 NT Live가 달오름극장으로 옮겨왔다. 다시 고전을 택하는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 ‘충실한 재현’을 각기 다른 색깔로 발현한 두 작품, ‘예르마’와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를 상연한다. 모던과 클래식 사이를 오가는 두 편의 작품을 미리 만나보자.

영상 매체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공연의 기록이 텍스트에 의존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평면 프레임에 갇힌 영상 기록이 극장으로 향하는 길의 온도, 공연자와 관객이 이루는 분위기, 극장의 냄새, 무대 위 빛의 변화, 배우의 밭은 숨소리와, 배우들이 침묵하는 순간 무대에서 들리는 또 다른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리고 공연예술이 갖는 독보적인 가치인 현장성과 일회성에 대한 오랜 편향성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공연이 갖는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공연예술의 현장성을 ‘영상’이라는 매체의 힘을 빌려 화면에 담아 연출자가 의도하는 바를 예술적으로 기록·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영국의 국립극장이 화제의 연극을 촬영해, 전 세계 공연장과 영화관에서 생중계 혹은 앙코르 상영하는 NT Live National Theatre Live가 그 선두에 있다.


© Johan Persson

국립극장은 2014년 3월 '워 호스'를 시작으로 국내 최초로 NT Live를 극장에 도입했다. 총 9편의 작품을 상영하면서 초반의 낯선 분위기와 이물감, 반감을 서서히 걷어냈고, NT Live는 탄탄한 고정 관객층을 형성해나가고 있다.

2018년 국립극장의 NT Live는 해오름극장이 아닌, 달오름극장으로 장소를 옮겨 더 반가운 얼굴로 찾아왔다. 이전 국립극장의 NT Live가 해오름극장의 대형 스크린에 적합한 대중성 높은 대작이었다면, 중극장으로 옮기면서 조금 더 촘촘하고 내밀한 작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오히려 관객에게는 다양한 선택지가 되어 기쁨을 더할 것 같다.

2018년 3월 상영작은 텍스트로서는 이미 고전이 된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의 '예르마'와 톰 스토파드의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이다. 가능한 한 연극의 결을 다치지 않게 노력하면서도 영상이 가진 장점을 솜씨 좋게 조율한 작품들이다. 운율이 좋은 영국식 발음 사이 배우들의 들숨과 날숨, 그리고 그 사이의 쉼표까지 오롯이 담겼다.

내밀한 모던함의 깊이 '예르마'

'예르마'를 제작한 영 빅 시어터는 고전을 실험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해왔다. 34세의 젊은 작가이자 연출가인 사이먼 스톤은 시인이자 극작가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의 1934년 희곡 '예르마'에서 중심 이야기만을 뼈대로 남기고 해체하면서 극의 중심을 현대의 런던으로 옮겼다. 시적 여운과 더불어 그리스비극의 요소가 훨씬 강한 원작을 100분의 상연 시간으로 압축하면서 방대한 시적 대사도 줄이고 세부 묘사도 과감하게 삭제했다.

아이를 갈망하는 여인이 임신하지 못해 좌절하고, 강압적인 세상을 상


©Manuel Harlan

징하는 남편과 대립하는 비극적인 줄거리가 뚜렷한 선을 긋는다. 중심 이야기와 거리가 있을 법한 상징적이고 시적인 대사도 없애고, 대사 없이 희곡에 묘사된 코러스 인물들은 과감하게 배제해 알맹이만 추려냈다. 시와 노래를 통해 인물들의 감정을 드러낸 원작 희곡과 달리 현대화된 '예르마'는 인물들의 입을 빌려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무대에 흐르는 정서는 권태와 공허함이다. 아이를 낳아 키우면 자신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여인과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남자라는 설정은 현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이물감을 덜어냈다. 연출가 사이먼 스톤은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편집하듯이 이야기를 연결해 주인공의 정서 변화와 갈등에 관객이 몰입할 수 있게 만든다.

NT Live 상영작을 보면 TV나 영화를 통해 관객에게 매우 친숙한 배우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영화 혹은 TV 시리즈의 배우들이 연극 무대에 서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영상물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배우들이 등장하는 영상화된 공연은 관객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든다. 주인공 빌리 파이퍼는 드라마 '페니 드레드풀' 시리즈를 통해 한국 관객에게도 꽤 알려진 배우다. 빌리 파이퍼는 금세 부서져버릴 것 같은 신경병에 사로잡힌 여인이 되어 무대에서 과감하고 폭발적인 연기를 펼친다. 카메라는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빌리 파이퍼의 아주 작은 움직임과 표정, 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관객과 내밀하게 소통해야 하는 순간에만 클로즈업으로 표현된 영상은 극의 흐름과 관객의 상상력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유려하게 편집되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출산으로 자신의 삶이 더욱 나아지리라는 여인의 바람이 과연 21세기에 적합한 현대적 화두인가 하는 의문이다. 툭 던져졌지만 문제의식이 부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인물에 집중해서 보자면 한 여인의 공허함은 충분히 공감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리지 클래건이 디자인한 무대는 '예르마'의 또 다른 주인공 역할을 해낸다. 분절되어 경계가 분명히 드러난 투명한 유리로 에워싼 무대 안은 쇼윈도 같기도 하고 인형의 집처럼 보이기도 해, 금방이라도 부서져버릴 것 같은 주인공의 내면을 드러낸다. 그리고 유리의 경계 사이로 간혹 무대 위 배우들의 형상이 왜곡되어 보이는 순간이 꽤 인상적이다.

'예르마'는 2017년 로런스 올리비에 여우주연상과 최우수 리바이벌 상을 수상하며 영국 연극계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화제작으로 떠오른 작품이다. 중극장 규모의 공연장에서 공연된 작품이라 달오름극장과 더욱 잘 어우러져 '현장'의 생생함을 더하리라 기대하는 작품이다.

경쾌한 클래식의 우아함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

3월 국립극장의 NT Live 상영작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영국의 극작가 톰 스토파드의 초기작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가 1967년 올드 빅 시어터에서 초연된 후 같은 극장에서 50주년 기념으로 상연된 작품을 영상에 담았다. '예르마'가 원작을 현대적으로 각색하면서 파격적인 이미지를 보여준 것에 비해 이번 작품은 톰 스토파드의 원작을 매우 충실하게 재현한다. 데이비드 르보 연출은 스토파드 원작에 대한 경외감과 존경심을 담아 영국식 고전의 우아함과 품위를 느낄 수 있게 극을 이끈다.

알려진 것처럼 극작가 톰 스토파드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단역으로 등장하는 햄릿의 친구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조리한 세상, 죽음마저 관조하는 블랙코미디를 만들어낸다. 초연 당시 '햄릿'이라는 비극의 중심에서 벗어난 두 주인공의 만담과 운율이 살아 있는 언어유희를 통해 부조리한 인생을 풍자하는 파격적인 작품으로 극찬을 받았다.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이라는 인물은 '햄릿' 속에서 딱히 주어진 대사가 없이 탄생한 캐릭터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스토파드는 이들에게 특별한 갈등과 성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둘 사이에 오가는 농담 같은 이야기와 의미 없는 행동은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스토파드는 이미 '햄릿'을 통해 죽음이 예견되어 있는 두 인물의 일상을 세밀하게 직조해내면서 죽음에 사로잡힌 정서와 희극적인 순간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았다. 그렇게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는 마치 '햄릿'과 '고도를 기다리며'의 스핀오프 같은 작품이었고, 당시에는 고전을 재해석한 파격적인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작품은 또 다른 고전이 되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무대 디자이너 안나 플라이슬은 폭이 좁은 소극장의 한계를 무대 깊이와 소도구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메운다. 극의 분위기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조명은 극의 분위기를 풍성하게 변화시키며, 인터미션 20분을 제외한 2시간 20분가량의 연극을 지루하지 않고 다채롭게 만든다. 연출가 데이비드 르보는 영화 '해리 포터' 시리즈의 대니얼 래드클리프와 TV 시리즈에서 활동하는 조슈아 맥과이어를 통해 원작이 지닌 시적 운율과 정서를 충실히 재현해낸다. 특히 2007년 '에쿠우스'로 연극 무대에 데뷔한 이후 연극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해리 포터'의 잔영을 지우고 배우로 거듭나고 있는 대니얼 래드클리프의 능청스러우면서도 섬세하고 유연한 연기는 놓치면 아까울 정도로 빛난다.

르보가 연출한 이번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은 새로움에 대한 강박이 없다는 점이다. 50주년 헌정작이라는 기획의 의미를 품고 충실하게 원작을 재현해낸다. 고전 그 자체에 이미 익숙하면서도 다시 고전을 택하는 관객이 가장 원하는 것, '충실한 재현'이라는 가장 어려운 숙제를 올바른 풀이 과정으로 해설하고 있는 느낌이다.

2018년 국립극장의 NT Live가 선택한 3월 상영작은 그 시절, 파격적인 신작이었지만 시간의 깊이를 얻어 어느새 고전이 된 작품들이다. 한 편은 파격적으로 각색해 현대화된 작품이고, 다른 한 편은 원작에 충실하게 고전적으로 재현해낸 작품이다.



고전이라고 불리는 작품은 '오래된'이라는 시간적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랫동안'이라는 연속성의 가치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그 가치가 빛을 잃지 않은 예술 작품. 지금 바로 꺼내 보아도 낡지 않은 의미를 품고 있는 작품을 우리는 기꺼이 '고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의미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아우르는 진심이 담겨 있다. 이번 두 편의 작품도 그런 의미에서 '오랫동안' 기억될 작품이다. 이왕이면 모던과 클래식 사이를 오가는 두 편의 작품을 연이어 보면서 지금 영국 연극계의 분위기를 느껴봐도 좋겠다.

글 **최재훈** 영화평론가·칼럼니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을 졸업했으며 제37회 영평상 신인평론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객석'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등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NT Live '예르마'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

날짜 예르마 2018년 3월 27~30일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 2018년 3월 31일~4월 1일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

국립국악관현악단 **리컴포즈×상주작곡가**

지금, 오늘의 작곡가들

이제 작곡가들은 과거의 창작 국악에서
종종 느낄 수 있었던 단순한 민족성이나 세계성을 작품에
과도하게 부각하지 않는다. 전통의 피상적인 인상에서
출발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곡에 깊숙이 천착해간다.

국악관현악에 대한 새로운 접근

국내 교향악단의 성공 신화는 주로 도전하기 어려운 명작을 무대에 올려 마니아 관객층을 형성하는 것이다. 클래식 음악의 관객은 자신이 선호하는 음악을 성공적으로 실연해줄 오케스트라를 찾고, 몇몇 교향악단과 함께 쌓여가는 감상 경험을 통해 음악 애호가가 된다. 여기에 유능한 지휘자의 등장은 늘 필연적이다. 그렇다면 국악관현악은 어떨까? 아마도 현시점에서 국악관현악은 걸출한 작곡가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 창작 국악관현악이라는 장르가 196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니, 짧은 역사만큼 앞으로 많은 곡이 나와야 할 것이다. 여러 국악관현악단이 해마다 위촉곡을 선보이며 절기마다 정기적인 공연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 가운데 국립국악관현악단의 행보는 어느 관현악단보다 창작자 조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리컴포즈×상주작곡가'는 2014년 시작된 리컴포즈 프로젝트와 2016년부터 생긴 상주작곡가 제도가 더해진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대표 창작 시리즈다. '전통국악을 소재로 동시대의 현대음악을 재창조하는 창작음악 연주'를 하고자 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목적에 따라 창단 이래 다양한 창작 작품을 선보였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작곡가 선정의 범주를 넓혀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작곡가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2014년 리컴포즈를 통해 해외 작곡가 4명이 소개됐고, 이후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작곡가들이 리컴포즈와 상주작곡가 제도를 통해 차례로 조명됐다. 이를 통해 만난 작곡가와 작품이 대단히 흥미롭다. 그들은 지금까지 기성 작곡가들이 보지 못한 시각으로 국악관현악에 접근했다. 예를 들어 곡의 형식을 파괴한다거나, 악기 배치를 새롭게 한다거나, 전통음악의 미분음이나 미묘한 박자에 몰입하고 그것들을 확장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복잡한 현대사회의 단면을 표현하는 데에 탁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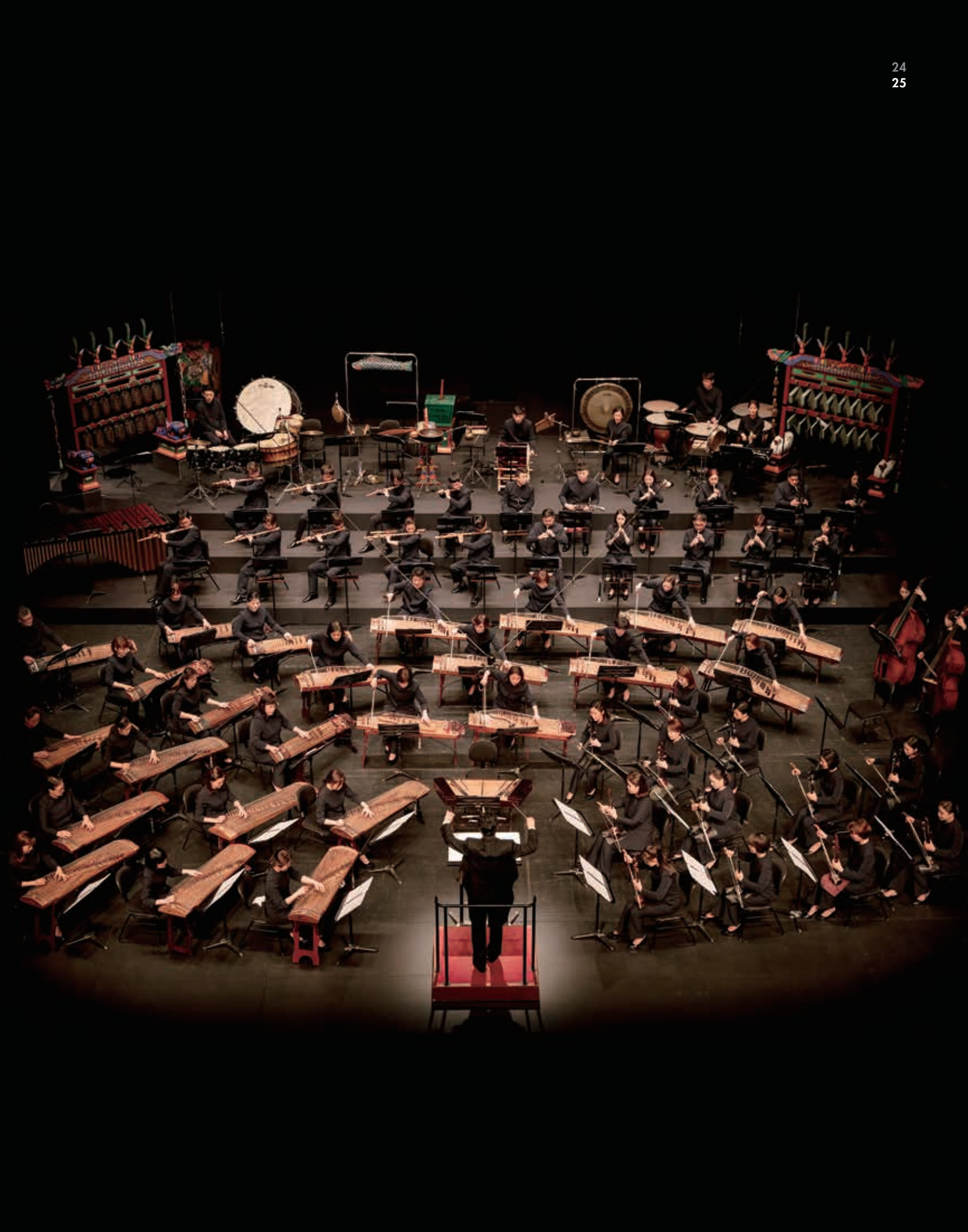
이번 '리컴포즈×상주작곡가'에서는 작곡가 네 명이 소개된다. 먼저 주목할 이들은 리컴포즈 프로젝트의 젊은 두 작곡가다. 지난해 중견 작곡가 네 명을 소개한 데 이어 이번 리컴포즈에서는 국악을 중심으로 작곡을 해온 김보현과 미국 등지에서 현대음악 기법을 기초로 작곡하는 니키 손의 곡을 초연한다. 20~30대의 이 두 작곡가는 각각 전통곡 '수룡음'(김보현), 민요 '울산아가씨'(니키 손)를 주제로 국악관현악을 위한 재창작에 나선다. 이날 같은 무대에 오를 또 하나의 공연은 2017-2018년 상주작곡가로 선정된 강은구와 최지혜의 작품이다. 두 작곡가 모두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받는 중견 작곡가다. 지난 7개월여 악단과 국악관현악곡에 대한 깊은 구상을 함께 해온 이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지휘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성기선이 맡는다.

이번 공연에서 소개될 네 명의 작곡가는 전통 연주곡이나 노래에 스민 흐름을 찾고,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곡을 해석했다. 보통 전통곡의 피상적인 인상에서 출발해서 어떤 이는 곡의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또 어떤 이는 바깥에서 중심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곡에 천착해간다. 이들은 과거의 창작 국악에서 느낄 수 있었던 단순한 민족성이나 세계성을 작품에 과도하게 부각하지 않는다. 해마다 주목되는 작곡가들이 작품에 접근하는 방식은 국악관현악이 단순히 추상적인 주제에서 벗어나 점점 더 개별적인 경험이나 이상을 반영해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글 **정우정** 음악평론가. 2012년 객석예술평론상을 통해 등단했다. 한국음악·한국춤·현대예술과 관련한 글을 쓴다.

국립국악관현악단 '리컴포즈×상주작곡가'

날짜 2018년 3월 23일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3만 원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리컴포즈’ 작곡 노트

▷ 김보현
‘수룡음 주제에 의한 관현악-물결’

‘수룡음’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예술 성악곡인 가곡 중에서 평롱·계락·편수대엽의 반주곡을 관악기로만 변주해 연주한 음악이다. ‘물속을 노니는 용의 노래’라는 수룡음의 뜻을, 김보현 작곡가는 물결의 파장과 반복, 확장의 뉘앙스로 보아 동시대적 해석을 가미했다. 주로 생황과 단소의 이중주로 연주된 곡을 국악관현악으로 편성하고, 휘파람·핑거 스냅 등 사람이 직접 내는 소리를 더해 다양한 물결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물결’ 작곡 노트

나는 전통 악곡 수룡음을 듣고 느낀 인상적인 표현과 잔상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 국악관현악 ‘물결’을 작곡했다. 수룡음은 제목의 의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시작되는 물’ 그리고 ‘물속을 노니는 어느 생명이 만들어내는 물결’을 상상케 했다. 무엇보다 수룡음의 농음은 나에게 파상적인 물결 그 자체였다.

수룡음에 담긴 표현 중 인상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4도 도약 진행이다. 이는 전통 악곡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진행으로 수룡음에서도 역시 빈번하게 쓰였다. 둘째, 음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음을 무리하게 감싸 돌기도 하고, 길게 뻗었다가 짧게 숨을 쉰 뒤 다시 그 자리에서 뻗기도 했다. 셋째는 반복이다. 내뱉은 표현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되새김질을 하듯이 넘어가곤 했다. 넷째로 다소 평이하게 이어지는 악식 또한 수룡음의 특징이다. 평이함이란 지루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끝없이 흘러갈 수 있는 힘이다. 이런 표현을 ‘물결’을 스케치하는 단계에서 근본 조건으로 삼았다.

한편 ‘물결’에는 악기가 만들어낸 음악 언어뿐만 아니라 휘파람, 핑거 스냅 등 사람이 직접 낼 수 있는 소리도 사용했다. 휘파람은 입김이다. 생명이 서로의 존재를 알리느라 이 같은 입김을 내뿜으며 원초적인 소통을 한다. 핑거 스냅은 물방울을 의미한다. 손가락을 부딪칠 때 나는 소리가 물방울이 톡톡 터지는 소리를 닮은 듯해 시도해보았다.

물결이 작게 일렁인 뒤 점점 퍼져서 큰 물결을 이루듯 곡도 소리의 조합을 통해 큰 물결을 이루어간다. 바위에 부딪힌 물결은 음악 안에서 제 박자를 흐트러뜨리고 어긋나는 것으로 표현했다. 수룡음의 인상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동시에 ‘그래야만 한다’는 편견은 털어버리고 싶었다. 이를 위해 구성음과 시김새에 변화를 주어 새로운 생을 위해 뒤틀리는 만물을 표현하는 것으로 탈脫수룡음적인 스타일을 지향한다.

관현악에서 대금·피리·해금은 때때로 화성을 쌓는다. 음이 켜켜이 쌓여 덩치를 키우고 힘 있게 앞으로 나아간다. 관현악곡에서 관악기가 화성을 쌓는 것이 흔한 일이긴 하지만 이 곡에서는 화성 악기인 생황의 위상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물결’이 잔잔하게 시작해 뒤틀리고 요동을 치는 동안 진정으로 무엇을 들려줄 수 있을까 고민했다. 우리는 사소한 미물에도 생명이 숨 쉬고 있음을 알고 있다. 다만 좀체 귀 기울이지 않을 뿐이다.

▷ 니키 손
‘울산아가씨 주제에 의한 관현악-울산아가씨 찾기’

니키 손은 경상도 민요 ‘울산아가씨’를 소재로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선보인다. 니키 손은 울산에서 유년기를 보낸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 할머니를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적인 관점에서 ‘울산아가씨’라는 음악적인 모티프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함으로써 각기 다른 세대가 즐기는 민요의 면면을 그려낸다. ‘울산아가씨 찾기’는 단순한 음계와 멜로디 구조를 지닌 원곡을 서양음악의 반음계 화성악을 접목해 풍성하게 해석한 곡으로, 울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다채로운 악기 편성으로 표현하고 넓고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활기찬 사람들을 그린 생동감 넘치는 곡이다.

#‘울산아가씨 찾기’ 작곡 노트

나는 미국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국악기를 사용한 경험이 없다. 처음에는 악기들이 생소하고 음역이나 연주법이 제한적이어서 고민이 많았다. 또한 지금까지 작곡한 음악들이 움직임이 빠른 하모니를 사용한 스타일이어서 상반된 분위기의 음악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어려운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과 흡사했다. 적용할 방법을 찾아 다양한 시도를 해가는 과정이 아주 흥미로웠다.

여러 민요 중에서 울산아가씨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 민요의 주된 정서인 한이나 슬픔을 표현하기보다 풍요로움, 나아가 희망적인 내용을 품고 있어서다. ‘울산아가씨 찾기’는 자전적인 곡으로, 나의 할머니·어머니를 거쳐서 나와 미래의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표현한다. 즉 하나의 모티프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해 각기 다른 세대의 울산아가씨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음악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단순한 음계와 멜로디 구조를 가진 경상도 민요 ‘울산아가씨’를 서양음악의 반음계 화성악을 접목해 다채롭고 풍부하게 해석했다. 나의 음악적 기법은 미국의 작곡가 코플랜드와 번스타인으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오케스트라나 악기 사용에서는 프랑스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최근에는 보사노바의 화성에 흥미를 가지고 이를 음악에 적용하고 있다. 국악기를 사용하는 경우 반음계의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미세한 음정으로 인해 동양적 음색과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국악기만이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음악의 매력을 드러낸다.







상주작곡가 인터뷰

지난해 9월, 국립국악관현악단은 두 번째 상주작곡가로 강은구, 최지혜를 위촉했다. 작품 주제 선정부터 악기에 대한 고민까지 단원들과 함께 한 작업의 결과물을 준비하고 있는 두 작곡가를 미리 만나봤다.

▷ 작곡가 최지혜

최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이상을 추구하면서 악기 개개의 음색에 그만의 역할을 준다. 지난해 '25현 가야금 협주곡 윙Wing'으로 대한민국 작곡상 우수상을 받으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발표하는 작품은 어떤 곡인가.

국악관현악을 위한 '강River'이라는 곡이다. 강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임진강을 다녀와 강렬하게 다가오는 영감에서 작곡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강줄기가 있고, 흔히 이를 '젖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만큼 사람에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다가온 것 같다.

전통곡이나 창작곡 중에서 해안굿처럼 생업과 긴밀하게 연결된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곡은 많았지만, 강을 소재로 한 곡은 드문 것 같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런 것 같다. 강은 바다보다 역동적이지도 않고, 생산적이지도 않은 느낌이 있다. 하지만 강 주변 역시 시장을 이루기도 하고, 인간을 정화하는 역할을 해오지 않았을까. 물은 늘 인간 생존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서정적으로 보고자 했다.

자연을 표현할 때, 음악가들은 보통 음색으로 구체성을 준다. 이번 곡은 어떤가.

징에 주목했다. 보통 징은 음정이 없는 무율악기로 설명된다. 하지만 징도 제조 과정을 거치면서 쇠에 따라 울림의 높낮이가 다르게 생기는데, 서로 다른 징 석 대로 느낌을 살려보고 싶었다. 강물이 흐르듯 징 한 대가 울리면 그 여음을 연결해서 울림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그 위에서 관현악기들이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것이다.

지금까지 국악관현악곡보다는 실내악곡이나 중주곡 등 소품 위주로 작품을 써왔다. 지난해 안산시립국악단이 초연한 '25현 가야금 협주곡 윙Wing'(문양숙 협연) 이후 대곡 작업에 들어가는 듯하다.

젊은 시절 국립국악관현악단에 재직했고 몇몇 곡을 썼지만 국악관현악은 나에게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느껴졌다. 대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사이 국악관현악은 상당한 실험을 하면서 발전했다.

서양음악의 이해에서 곡을 쓰는 경우 첼로를 아쟁으로 대신하는 등, 악기군을 대체해서 국악관현악곡을 쓰기도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선 무척 다르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시도하고 곧 실패한다. 연상을 깊이 할 수 없는 음색을 추상적으로 대체해서 생각하는 거다. 개인적으로 바이올린과 첼로를 무척 좋아하는데 그 음색을 상상해서 곡을 썼다면, 그 악기를 직접 넣는 편이 오히려 생산적이다. 무엇이든 확연하게 다른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 작곡가 강은구

강은구의 곡은 우리가 지나온 어떠한 지점이나 시간에 잠시 머물러 있는 느낌이 든다. 그는 서양음악을 전공했지만 국악관현악의 가능성을 어긋나고 부딪치는 미분음의 조화 속에서 찾는다.

지난 7개월 동안 상주작곡가로서 어떤 작업을 했나.

지난해 9월부터 한 달에 2~4회 정도 악단을 찾아 회의하고 연습에 참관했다. 주로 수석단원들과 곡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작업을 했다. 연습에서는 악기마다 편하게 연주되는 방식을 집중적으로 보고 이를 작품에 반영하고자 했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곡을 쓰는 데 매진했다.

이번 작품은 '부정놀이'라는 주제다. 어떤 곡인가.

'놀이'와 '음악', '상서로운 일'과 '음악'. 이들의 지속성을 고민한 끝에 나온 주제다. 경기도당굿에 부정놀이장단이 있다. 굿을 할 때 신을 맞이하면서 춤을 추는 장단인데, 이 장단을 중심으로 곡을 시작하면 뒤로 갈수록 여러 장단을 엮어 악곡을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굿 음악은 기본적으로 인간 의식을 건드려 풀어주는 역할을 해서 놀이와도 뗄 수 없다고 본다. 취타나 도살풀이·굿거리·진양·당악 장단 등을 사용했다.

특별한 음악적 기법을 사용한 게 있다면.

'거울 기법'을 활용한 부분이 있다. 거울을 비춘 것처럼 주제가 서로 주고받으며 따라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지나가면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삶과 닮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굿에 있는 반복성을 통해 음악이 가진 근원의 힘을 이용해보고자 했다.

기존 발표한 관현악 작품에서 주로 음을 뻗어내게 하지만 그 속에 여러 미분음을 미세하게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의도한 방식인가.

나는 조금씩 모자라는 음정을 무척 좋아한다. 국악기만을 사용하는 원칙도 이러한 음정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생각하는 음정의 차이나 음향이 실제로 구현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때가 많다. 실제로 음악이 연주로 구현될 때 오히려 매끈하게 표현되는 식인데, 개량된 악기 자체나 익숙한 음정 등 환경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글 **정우정** | 사진 **전강인**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김준수의 수궁가-미산제**

본연의 길을 다시금 다지다

국립창극단이 올리는 다양한 작품의 주연은 물론 방송계까지 발을 내디딘 그가 소리꾼으로서의 공력을 다지기 위해 첫 완창판소리에 도전한다.

2018년 상반기 완창판소리 무대의 주인공이 정해졌다. 김준수·박애리·유영애·정신예 명창이 그들로, 신진과 중견 그리고 노장의 조화가 돋보이는 라인업이다. 3월에 열리는 완창 첫 무대의 주인공은 국악계의 아이돌, 판소리 스타로 불리는 김준수다.

김준수는 최근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하며 동시대 관객들이 국악을 한결 친근하게 접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불후의 명곡' '너의 목소리가 보여' 드라마 '조선미인별전' 등에 출연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면서 팬덤을 형성할 조짐을 보이며 '준수한 소리'라는 팬 카페까지 결성되었다.

김준수의 이러한 활동상은 진작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어려서부터 TV 방송으로 창극 작품을 보면서 무대에 서고 싶다는 꿈을 키우던 그는 중앙대에 재학 중 국립창극단 객원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의 집에서 공연한 가무악극 '몽유도원도'에도 출연한 바 있다. 그리고 대학 4학년 때 국립창극단에 입단해 지금까지 눈부신 활약상을 보이고 있다.

준수한 외모에 빼어난 연기력으로 두터운 팬층을 지니고 있는 김준수도 한때 슬럼프에 빠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대학교 2학년 무렵, 무대에 서는 일이 두렵게 느껴지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감정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동안 스승이 가르치면 그대로 배우는 데 익숙하다 보니 별다른 고민 없이 공연 활동을 해왔는데, 이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소리를 하려다 보니 판소리가 매우 어렵게 다가온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소리를 자기화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본질적인 고민이라 할 수 있다. 다행히 소리꾼으로서의 소명의식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김준수는 전남 강진 출신이다. 초등학교 때 지역에서 개최한 어느 경연대회에서 국악 동요 '도라지 타령'을 불러 3위를 차지한 일이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소리에 매력을 느낀 김준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박방금 명창에게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3년여에 걸쳐 미산제 '수궁가'를 배운 김준수는 목포예술고등학교(현 전남예술고)에 진학해 목포에 거주하면서 박방금 명창으로부터 '흥보가' 전 바탕과 '심청가' 중 '초앞' '심청이 인당수 빠지는 데'를 학습했다. 이후 중앙대에 진학해 한승석 명창에게서 '적벽가'를 배웠으며, 지금은 유미리 명창으로부터 '춘향가'를 공부하고 있다. 박방금 명창이 판소리에 대한 기본기를 잡아주고 소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었다면, 유미리 명창은 소리의 디테일을 가르쳐주며 소리에 색을 입혀주었다. 김준수는 2013년 동아국악콩쿠르 판소리 부문 금상을 수상했고, 2017년에는 문화예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악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스승으로부터 목구성이 좋고 애원성을 타고났다는 평을 들은 김준수는 가능한 한 활동 공간을 넓히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자신이 소리꾼임을 잊지 않고 있다. 이번에 시도하는 첫 번째 완창 공연은 그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선택한 무대다.

그가 부를 소리는 '수궁가'로, 판소리에 입문하면서 박방금 명창으로부터 가장 먼저 바탕소리로 학습한 '미산제'다. 송흥록·송광록·송우룡·유성준·정광수·박초월로 이어진 바디를 '미산제'라 하며, 이것이 박양덕·박방금으로 이어진 것이다. '미산'은 박초월 명창의 호다. 서슬과 구성 있는 목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박초월 명창은 시김새가 돋보이고 애원성의 표현에 능했는바, 동편 바디를 이은 '수궁가'에도 그녀의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수궁가'는 본래 석가의 전생담인 불전 설화에서 기인한 작품으로, 강자와 약자의 갈등 구조를 중심축으로 삼아 지혜의 문제를 다룬 우화다. 용왕과 자라로 대표되는 수궁 세계가 강자인 지배층의 세계라면, 토끼와 여우로 대표되는 육지 세계는 약자인 피지배층의 세계다. 강자와 약자의 대결 구도에서 '지혜'의 문제가 핵심으로 제기되는데, 별주부와 토끼 가운데 누구를 긍정적으로 보는지에 따라 작품의 주제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수궁가'의 주요 눈대목으로, '약성가藥性歌' '토끼화상' '고고천변' '범피중류' '토끼 배 가르는 대목' 등을 꼽을 수 있다.

창극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중적인 인기에 만족하지 않고 소리꾼으로서의 공력을 다져나가고 있는 김준수가 펼쳐 보이는 2018년 첫 완창 '수궁가' 공연은 여러모로 흥미롭고 기대되는 무대다.

글 **김기형**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판소리학회 부회장,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서울시 문화재위원 등을 맡고 있다. 주요 논저로 '적벽가 연구' '여성국극 60년사' 등이 있다.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김준수의 수궁가-미산제'

날짜 2018년 3월 24일
장소 국립극장 하늘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봄처럼 반가운 시작

언제나 그랬듯 그래도 봄은 오고, 올해도 역시
봄은 반갑다. '반갑다' 혹은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쓸 수 있는 계절은 '봄'뿐이지 않을까?
봄을 알리는 3월이 되면 기다렸다는 듯
다양한 공연과 축제가 시작되고 국립극장
스테디셀러인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정오의 음악회' 역시 그 시작을 알린다.

'정오의 음악회'는 다섯 코너로 구성되는데 그 첫 순서는 음악과 함께 떠나는 여행 '음악견문록'이다. 3월의 여행지는 이웃 나라 일본. 그리고 첫 행선지는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고도古都다. 1901년 천재 작곡가 다키렌타로가 오사카성 유적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황성의 달'로부터 역사의 애절함을 느껴본다. 이어서 바다로 가본다. 홋카이도 지방의 어부들이 청어를 잡으며 부르던 노래 '소란부시'를 60명으로 구성된 국악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로 감상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 민요를 축제와 같은 흥겨운 자리에서 춤과 함께 선보인다고 한다.

일본식 뱃노래를 한바탕 즐긴 뒤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성지라 하는 도쿄의 아키하바라에서 흘러나옴직한 음악, '인생의 회전목마'를 만나본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인 이 음악은 첫 구절만 들어도 '아~ 이 노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곡이다.

이어서 '기악협연'에서는 가야금협주곡 '소나무'를 국립국악관현악단 한향희 단원의 협연으로 감상해본다. 25현 개량가야금과 국악관현악곡으로 편곡이 된 뒤 대표적인 국악협주곡으로 꾸준히 연주되고 있는 이 곡은 본래 일본의 전통 현악기인 고토를 위한 음악이었으며 일본 전통음악의 색채를 물씬 느껴볼 수 있다. 특히 이 곡에는 죽어가는 소나무를 통해 자연 파괴를 경고하는 '녹색 보존'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소나무를 상징하는 가야금이 다양한 가락으로 풀어내는 이야기를 통해 작곡가 미키 미노루가 전달하려 한 메시지를 느껴보는 것도 음악과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소나무가 있는 풍경에 이어지는 무대는 묵직한 거문고의 울림을 즐길 수 있는 '전통의 향기'다. 이번 공연에서는 '신쾌동류 거문고산조'를 선



보이는데 산조는 대표적인 전통 기악독주곡으로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명인에 의해 여러 유파가 전해지고 있다. 신쾌동 명인은 스승에게 배운 산조에 엇모리와 휘모리를 새로 만들어 넣어 자신만의 산조를 완성했다. 그의 산조는 선이 굵은 가락이 많고 남성적인 산조로 손꼽히고 있다. 호쾌한 술대법과 왼손으로 줄을 뜯거나 치는 자출自出 기법, 그리고 농현이 화려한 신쾌동류 거문고산조의 묘미를 오경자 단원의 연주를 통해 감상해본다.

타임머신을 탄 듯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음악 나들이를 하다 보면 공연도 어느새 중후반에 접어들고, 이제는 이 시대의 음악인을 만날 차례다. '이 음악이 좋다'에서는 국악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음악과의 앙상블을 자주 선보이는 가수 한영애를 만나본다. 국악방송 라디오 '한영애의 문화시대'의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는 한영애는 국악과 인연이 깊은 가수로 이번 무대에서는 그녀의 히트곡 '누구없소' '조율' 등을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협연한다. 한영애 특유의 국악적인 목소리가 우리 음악과 절묘하게 어울려 가요인 듯, 노래인 듯, 아니 그저 소리인 듯 흐른다. 한영애식 '소리'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다.

3월 '정오의 음악회'의 마지막 무대인 '관현악 명곡'에서는 홍동기 작곡의 '고구려의 혼'을 선보인다. 이 음악은 만주 벌판을 호령한 고구려인들의 힘차고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한 곡으로 특히 말발굽 소리를 표현한 듯한 강렬한 북소리가 인상적이다. 타악기의 리듬을 타면서 음악을 감상해보자. 무릎장단이라도 치다 보면 내가 치는 장단 위에 얹어지는 태평소와 피리의 호탕한 음색과 아기자기한 속삭임으로 악센트를 주는 현악기들의 음색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으로 표현해낸 넓은 벌판을 한바탕 달리다 보면 어느새 가슴이 뻥 둘리고 신명이 온몸에 가득 차오를지도 모를 일이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정오의 음악회'에는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친절한 해설이 함께한다. 임재원 예술감독이 들려주는 음악 이야기와 그가 짚어주는 감상 포인트를 따라가다 보면 음악 '감상'을 넘어 국악에 '공감'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글 **박근희** 1995년 MBC TV 수미기픈물로 방송 활동 시작, KBS 클래식FM과 국악방송 등에서 라디오 원고를 썼다. 공연, 영화, 칼럼, 기사 쓰기 등 국악과 관련된 많은 일을 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새롭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날짜 2018년 3월 7일
장소 국립극장 하늘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김지숙

국립창극단

2012년 국립극장이 시즌제를 도입하면서
국립창극단 작품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일었다.
김지숙에게 그 변화의 바람은
유독 세게 몰아쳤다. 속절없이 가라앉는가 싶던
찰나에 죽을힘을 다해 일어섰다. 그렇게
'옹녀'로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새롭게 썼다.

카메라 앞에 선 김지숙의 눈을 가만히 바라본다. 또렷한 눈매, 맑은 눈동자에 우수가 서려 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힐 듯이. 그 모습은 이내 아들 아스티아낙스를 꼭 껴안고 흘러가는 암운을 무심히 바라보는 안드로마케의 얼굴로 바뀐다. 여인들의 한이 뜨겁게 타오르는 '트로이의 여인들' 속에서 그녀는 되레 차갑게 식어갔다. 지켜줄 수 없는 자식 앞에서 모성애는 그렇게 움직인 걸까.

고상한 외모와 도도해 보이는 이미지는 김지숙이 처음 무대에 오르던 순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그녀와 대화를 나눠본다면 이는 그저 수식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여전히 수줍음을 많이 탄다"라고 말하는, 전라도 사투리 섞인 느릿한 말투와 너털웃음에 나는 빙긋 웃음을 지었다.

김지숙이 소리를 시작한 건 열다섯이었다. 또래나 후배들을 보면 보통 아홉 살, 무려 다섯 살에 시작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남보다 출발이 늦었지만 어려움이 크진 않았다고 회고한다.

"원래는 성악을 하고 싶었어요.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고, 음악 시간에 노래 시험을 보면 늘 최고점을 받았어요. 학예회 같은 걸 할 때면 자주 반 대표로 뽑혀 갔고요. 노래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저 노래가 좋아서 성악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전라북도 익산 출신이거든요. 시골이라 성악을 접할 길이 없던 거죠. 우연히 엄마 친구 분의 딸이 소리를 한다고 해서 거기를 쫓아갔더랬어요. 취미로 소리를 하는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저는 언니 따라서 다닌 것뿐인데, 정작 그 언니는 소리를 안 하고 제가 계속하게 됐어요."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던가.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국어 선생님은 그녀의 손을 붙들고 전주에 위치한 전라북도립국악원으로 데려갔다. 하루빨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는 선생님의 마음이었다. 그곳에서 민소완(성준숙) 명창을 만났다. 첫 소리 스승에게서 한두 해 배우고 광주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갔다. 갓 입학한 김지숙의 소리를 들은 학과장은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하지만 발성은 기초부터 큰 선생님께 다시 배워야겠다"라고 했다. 그렇게 안숙선 명창과 연이 닿았다.

"으레 주말이면 레슨을 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때는 안숙선 선생님의 제자가 많지 않았어요. 두 명인가 있었는데, 그중 저만 지금까지 소리를 하고 있네요."

열다섯에 소리를 시작한 그녀는 채 10년도 되지 않아 무섭게 성장했다. 그리고 1997년 국립창극단에 발을 들였다.

"어릴 때 저는 그저 평범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노래를 시작하게 됐고, 길을 따라가다 보니 운명적으로 서울에 닿게 됐죠. '국립창극단이 내 목표다' 이런 건 없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주위에서들 시험을 봐야 한다고 닦달해서 본 거였죠. 시험이라는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 첫 번째에선 낙방했어요. 두 번째에서야 합격했죠."

입단한 지 몇 해 지나지 않아 김지숙은 국립창극단의 새 얼굴로 부상했다. 주역 자리를 거머쥐었으니 '신예' '차세대 명창' '세대 교체' 등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이 당연지사. 1999년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극본과 연출을 맡은 완판 장막창극 '심청전'에선 유수정·최진숙과 함께 심청을 맡았다. 그야말로 '사건'이었다.

"배역 욕심은 없었지만 노래는 자신이 있었어요. 숫기가 없어서 연기는 잘 못했죠. 캐스팅 운이 따랐던 거 같아요. 당시에 안숙선·유수정 선생님이 춘향으로 주목받는 때였는데, 제가 그 자리에 서게 됐으니 파격이죠. 안숙선 선생님은 오히려 저를 안 시키려고 하셨어요. '너는 향단이도 안 했는데 처음부터 춘향이냐'며 안 된다고 하셨죠. 노래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있나요.(웃음) 선생님께서 제대로 못 해내면 무대에 안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올랐어요. 제가 그때는 노래를 좀 잘 했거든요."

이듬해 10월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열린 베세토연극제에선 김지숙의 강단을 제대로 보여줬다. '베세토BeSeTo연극제'는 한·중·일 3국의 연극과 공연예술 교류를 위해 각국에서 번갈아 개최하는 축제로, 1994년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0년에는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기념해 서울에서 행사가 열렸고, 우리의 고전 '춘향전'을 3부로 나눠 한국의 창극, 중국의 월극, 일본의 가부키로 공연했다. 그중 김지숙은 손진책 연출 창극 '춘향전'의 주인공으로 나선 것.

"공연을 준비하는데 자꾸 감기가 들고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연습 도중에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약을 먹을 순 없고, 목은 하나도 안 나오고… 무대 위에서 온전히 다 보여주질 못하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안 하느니만 못한 것 아닌가 생각도 했지만 죽을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아니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공연이에요. 나 자신을 뛰어넘게 한 작품이거든요."

밀레니엄을 기점으로 김지숙은 쉼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춘향과 심청은 대부분 그녀의 차지였고, 창극만 아니라 스승과 함께 완창판소리 무대에도 자주 올랐다.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 아힘 프라이어의 '수궁가'(2012)에선 안숙선 명창과 번갈아 도창자로 나서기도 했다.

2012년, 국립극장이 시즌제를 도입하면서 국립창극단 작품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일었다. 판소리 다섯 바탕을 현대적 감각으로 선보였고, 유실된 판소리 일곱 바탕을 새롭게 무대에 올렸다. 판소리만이 아니라 희곡과 소설, 서양의 텍스트도 우리 소리를 입고 다시 태어났다. 비단 작품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동시대의 조류 앞에서 창작자와 작품뿐 아니라 배우들도 변화해야 했다. 김지숙에게 그 변화의 바람은 유독 세게 느껴졌다.

"새로운 조류에 적응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입단한 이래 주어진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래만 해왔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원래 성격도 좀 내성적인데, 한동안 많이 우울했던 거 같아요. 대인기피증도 생겼고, 오디션도 안 봤죠. 그런 제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어느 날 김성녀 감독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두 시간 정도 앉혀놓고 타이르기도 하고 용기도 북돋아주셨어요. 그때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할까요. 기회가 생겼죠, 그게 '옹녀'였어요."
2014년 초연한 고선웅 연출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명실상부 국립극장을 대표하는 레퍼토리로 꼽힌다. 첫해엔 창극 최초로 26일간 23회 장기 공연하며 화제를 모았고, 초연 이래 3년간 꾸준히 재공연했으며 2016~2017년 공연은 객석점유율 100퍼센트를 상회했다. 이 공연에서 김지숙은 옹녀로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새롭게 썼다.

오랜 숙제를 풀다

올해로 김지숙은 입단 20년을 맞았다. 국립창극단이라는 입구에 들어서니 평탄한 길, 굴곡진 비탈길이 있었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다시 세웠다. 지난해에는 반가운 수상 소식을 들려주기도 했다. 전라북도 남원에서 열린 제44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 네 번의 도전 끝에 거둔 값진 결실이다.
"그건 자존심 회복이었어요. 국립창극단의 주역으로 무대에 서는 일, 당연히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면 다냐, 소리를 잘해야지'라며 폄하하는 시선들이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창극단 공연에서만 얼굴을 비추다 보니 예전 관객들에게 잊힌 것도 있고요. 다시 인정받기 위한 도전이었어요. 쉽지 않았죠. 공연 일정이 계속 겹쳐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목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어요. 나중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본선에선 '춘향가' 중 이별가를 불렀어요. 수상하고 나서 많이 울었죠. 숙제 하나를 해결한 기분이었어요."
오래도록 디디고 서 있던 자리에서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높게 바라보는 일. 최근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한국음악과 박사 과정을 시작했다.
"극장에만 폭 파묻혀 공연만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너무 공연만 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석사를 마친 지 20년 가까이 됐으니 박사는 꽤 늦은 편이죠. 학교 다니면서 제 부족한 점들을 채워나가고 있어요. 제자뻘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하는데, 견제나 시기·질투보다는 친구처럼 지낼 수 있어서 좋아요. 다만 학교에선 행정적인 부분까지 다 챙겨야 해서 그게 어렵더라고요. 극장에서는 노래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웃음)"
오늘날 창극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야 하는 존재론적 의무를 안고 있다. 공연예술의 경계가 점점 더 흐려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창극을 둘러싼 정답 없는 질문에 대한 김지숙의 생각을 물었다. 이내 '국립'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창극단의 분위기가 한차례 바뀌면서 개인적으로 슬럼프를 경험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변화는 무척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연극이나 다른 장르의 연출가들이 국립창극단과 작업하면서 관객층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창극 배우로서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소리를 깊이 알고 좋아하던 분들은 발길이 뜸해졌다고들 해요. 소리꾼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국립'이잖아요. 나라의 녹을 먹고 있죠. 여기엔 전통을 보존하는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의 작품을 보존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국립이니까 국립다운 작품을 하면서 새로운 시도도 잘 배분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처음 입단해 경험한 것처럼 이제는 다음 세대를 잘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꾸준히 세대가 바뀌면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물려줘야 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전통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다.
"시간이 지나서 적당한 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재능 있는 후배들을 보고 있으면 부럽기도 하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무엇보다 대견하고요. 기회가 되면 후배들과 함께 작품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중심이 아니라 지원해줄 수 있는 역할로요. 그들이 모르는 부분은 제가 채워주고, 저는 그들에게서 젊은 기운을 얻을 수 있겠죠.(웃음)"

글 **김태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무용 이론을 공부하고 있다. 월간 '객석'과 서울문화재단·국립극장에서 잡지를 만들었으며,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제12회 젊은 비평가상을 수상했다.
사진 **전강인**

국립극장

2018
3.07 | 4.04
5.16 | 6.20
수요일 11am

장소
국립극장 | 하늘

해설
임재원

연주
국립국악관현악단

관람료
전석 2만원

예매
국립극장
02-2280-4114
www.ntok.go.kr

인터파크
1544-1555

티켓링크
1588-7890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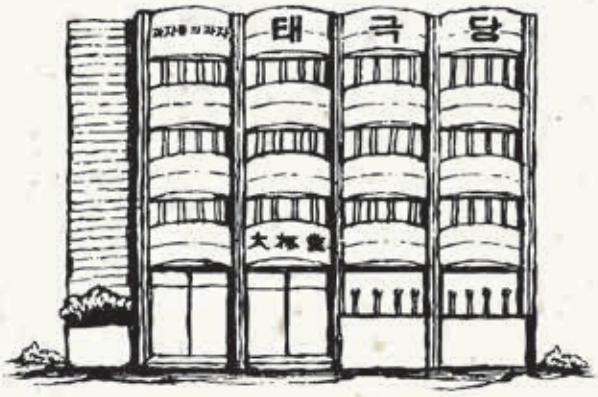
MIDDAY CONCERT
국악 브런치 콘서트

수요일 오전 11시
국립극장 | 하늘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7-2018

정오의 음악회와
태극당이 함께합니다



빵의 고전.

세월을 버티어 내는 고전들처럼
오래된 빵집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특별할 게 있겠습니까, '빵 맛'이겠지요.

'태극당'입니다.
'맛있는 빵'이라는 빵집의
당연한 철학으로
71년을 이어왔습니다.

궁금하시겠지요.
이 빵집이 버텨온 세월이 수긍이 가는지
여전히 버텨도 괜찮은 일인지.

그러시다면,
빵을 맛보러 와 주시면 될 일입니다.

세월의 빵집

태극당

서울시 중구 동호로24길 7 | 02-2279-3152 | www.taegeukdang.com | hello@taegeukdang.com

국립극장 | 국립창극단

예술의전당

신창극시리즈 1

소녀가

SONYEO-GA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7-2018

2018. 2.28 - 3.4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수·금 20:00 | 토·일·공휴일 15:00

주최 예술의전당,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김성녀 극본,연출,작창,작곡 이자람

지정석 30,000원 자유석 20,000원 예매 및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예술의전당 02-580-1300 인터파크 1544-1555

3월의 기대작



국립무용단 **넥스트 스텝**

국립무용단은 그간 다양한 안무가와의 작업을 통해 한국춤을 새롭게 해석하고 현대화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무용수들은 이를 통해 동시대의 관객과 다양한 방식으로 호흡하며 국립무용단과 한국무용의 지향점을 모색해왔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국립무용단이 차세대 안무가를 발굴하기 위한 젊은 창작 프로젝트 '넥스트 스텝'을 선보인다. 국립무용단 단원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안무가로 발굴·육성하기 위한 마중물 구실을 할 이번 프로젝트에 정소연·김병조·이재화 단원이 선발됐다. 지난해 내부 심사에서 창작 역량을 인정받은 이들은 연출·무대·음악·의상 등 체계적인 제작 시스템의 지원 아래 각각 약 30분 분량의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 정소연은 '싱커페이션syncopation·당김음'을 주제로 새 작품을 올린다. 주제어의 의미 확장을 통해 살아가면서 만나는 예측 불가능한 순간을 춤과 음악에 담아낼 예정이다. 김병조는 다양한 연령대의 무용수가 공존하는 국립무용단을 내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무용수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재화는 농악의 칠채장단을 소재로 삼아 춤·음악·판소리를 활용해 장단의 다채로운 변주를 보여준다. '안무가 부족'이라는 무용계의 오랜 고민에 대한 적극적인 해답이 될 '넥스트 스텝'을 통해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세 작품을 만나보자.

일시 3월 15~17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Next Step**

The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has reinterpreted and modernized Korean dance through various works with different choreographers. Dancers of NDCK have constantly been finding plans for Korean dance interacting with the audience. With this trend, the project "Next Step" which discovers the next generation of choreographers was started to give an opportunity of creation for the members of NDCK and nurture the future choreographers. The three members, So-Yeon Chung, Byung-Jo Kim, and Jae-Hwa Lee, were credited for their capabilities on the evaluation 2017 and selected for the project. Their works have been supported under the organized production system by direction, stage, music, and costume. Each piece will be 30 minutes long and unveil this March. So-Yeon Chung will present a new piece of work on the theme of syncopation capturing the unpredictable moments in the music and dance through increasing the meaning of subject. Byung-Jo Kim will tell the audience about the life of dancers watched inside the NDCK where various dancers of all ages cooperate. Jae-Hwa Lee, one of the young generation of dancers, will show the diverse variations of rhythm based on the Chilchae rhythm of nongak using dance, music, and pansori. The three performances with different colors will deliver the enthusiastic answers for the shortage of choreographers.

Date&Time March 15 - 17 Weekdays 8:00 p.m., Weekend 3:00 p.m.
Location Daloreum Theater, National Theater of Korea
Tickets 20,000 KRW
Info National Theater of Korea 02-2280-4114



국립국악관현악단 **리컴포즈×상주작곡가**

창단 이래 전통음악의 동시대적 재창작을 목표로 달려온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올해 첫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독자적인 기획으로 주목받은 '리컴포즈'와 '상주작곡가' 제도를 결합해 하나의 공연으로 선보인다. 2014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리컴포즈'는 동시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전통음악의 가치를 짚어보고 다양한 화두를 고민해보는 무대다. 올해 '리컴포즈'에선 젊은 작곡가 두 사람의 창작음악을 들려준다. 서양음악 작곡가 니키 손은 민요 '울산아가씨'를 재해석한 '울산아가씨 찾기', 김보현은 주로 생소병주로 연주되는 '수룡음'을 관현악으로 재편성하고 동시대적 해석을 가미한 '수룡음 주제에 의한 국악관현악-물결'을 선보인다. 국악관현악단 최초로 2016년 국립국악관현악단이 도입한 상주작곡가 제도는 첫해 김성국·정일련을 상주작곡가로 위촉해 연주자와 긴밀하게 호흡하며 다양한 실험을 선보였다. 2017-2018 시즌 상주작곡가로 선정된 강은구·최지혜는 지난해 9월부터 단원들과 소통하며 창작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물인 강은구의 '부정놀이-나쁜 일들이 잘 풀리고, 좋은 일들을 기다리는 마음'(가제)과 최지혜의 국악관현악을 위한 '강River'을 이번 공연에서 만날 수 있다. 성기선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가 포디엄에 오른다.

일시 3월 23일 오후 8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3만 원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National Orchestra of Korea
Recompose × NOK Resident Composers Concert

The original program "Recompose" of National Orchestra of Korea and "Resident Composer" system combine into this performance. Recompose is NOK's major series since 2014, which attempts to approach to traditional music from the modern perspectives. Two young composers will play their creative music this year. A Western music composer, Nicky Sohn, reinterprets the Korean folk song "The Lady of Ulsan" into "Finding to the Lady of Ulsan." Bo-Hyun Kim reorganizes "Suryongeum" which's usually played by duet of saenghwang and danso, and presents the "Gugak Orchestral Music – Wave on the Theme of Suryongeum" with contemporary interpretation. The Resident Composer system was initiated by NOK in 2016 for the first time of the Korean orchestra history. Two composers, Seong-Guk Kim and Il-Ryeon Jeong, were commissioned as resident composers to conduct various experiments with players on the first year. On the 2017-2018 season, Eun-Gu Kang and Ji-Hye Choi have been interacting with the members of NOK for creation. As a result, "Bujeong Nori" by Eun-Gu Kang and "River" by Ji-Hye Choi will be on the stage this March. Ki-Sun Sung, a permanent conductor of Gangnam Symphony Orchestra, is going to stand on the podium.

Date&Time March 23 8:00 p.m.
Location Daloreum Theater, National Theater of Korea
Tickets 40,000 KRW (R), 30,000 KRW (S)
Info National Theater of Korea 02-2280-4114



NT Live **예르마·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

2018년 국립극장 NT Live는 중극장 달오름으로 장소를 옮겨 신작 두 편을 선보인다. 2016년 영 빅 시어터에서 제작한 '예르마'는 사이먼 스톤이 연출하고 로런스 올리비에 여우주연상과 최우수 리바이벌상을 석권하며 평단의 주목을 받은 작품이다. 스페인 시인이자 극작가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의 비극 '예르마'의 시대 배경을 현대 런던으로 옮겨 새롭게 각색했다. 간절하게 원하는 아이를 갖지 못해 좌절하는 여인의 삶과 강압적인 세상을 상징하는 남편과의 대립으로부터 인간의 자유와 본능에 대한 작가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영국 드라마 '닥터 후'로 한국에 얼굴을 알린 빌리 파이퍼가 주연을 맡았다.(3월 27~30일 상영) '예르마'가 원작을 새롭게 각색한 비극이라면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는 원작을 충실하게 리바이벌한 희극이다. 올드 빅 시어터 프로덕션 50주년을 기념해 데이비드 르보 연출로 새롭게 올린 버전으로 '영원한 해리 포터' 대니얼 래드클리프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다. 셰익스피어 '햄릿'에 등장하는 단역 로젠크란츠·길덴스턴을 주인공으로 새롭게 쓴 이 작품은 두 주인공의 선문답과 말장난 등 언어유희를 통해 사회 부조리를 유쾌하게 풍자한다. 대니얼 래드클리프(로젠크란츠 역)·조슈아 맥과이어(길덴스턴 역) 듀오의 코믹 연기가 궁금하다면 놓치지 말 것.(3월 31일~4월 1일 상영)

일시 3월 27일~4월 1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NT Live **Yerma, Rosencrantz & Guildenstern Are Dead**

The NT Live of National Theater of Korea moves to the Daloreum Theater and presents two new pieces this year. Directed by Simon Stone and produced by Young Vic theater in 2016, *Yerma* won the Best Actress and Best Revival at the Laurence Olivier Award getting attention from the critics. Spanish poet/playwriter Federico García Lorca's tragedy *Yerma* has been moved into the contemporary London and dramatized with a completely different manner by Simon Stone. The writer's philosophy about freedom and instinct of human can be found from the life of the frustrated woman craving the child and the conflict with her husband who implies to the coercive world. Billie Piper, new doctor of the *Doctor Who* series, stars and the play will be broadcast on March 27 - 30. Unlike Yerma which was newly adapted, *Rosencrantz & Guildenstern Are Dead* followed the original work closely. The NT Live version is directed by David Leveaux to celebrate the 50th anniversary production of the Old Vic theater, and our Harry Potter Daniel Radcliffe stars with topics. In this newly-written piece, two minor characters from Shakespeare's Hamlet, the courtiers Rosencrantz and Guildenstern, satire on the irrationalities of society pleasantly with puns and riddles. Do not miss this chance to find out how hilarious double-act of Daniel Radcliffe and Joshua McGuire can be.

Date&Time March 27 - April 1, 2018 Weekdays 8:00 p.m., Weekend 3:00 p.m.
Location Daloreum Theater, National Theater of Korea
Tickets 20,000 KRW
Info National Theater of Korea 02-2280-4114

번역 **김진**

클래식 음악



서울시향 2018 올해의 음악가

이안 보스트리지

올해 서울시향은 '올해의 음악가' 시리즈를 신설했다. 주목받는 해외 연주자를 상주 음악가로 선정해 그의 연주 세계를 다채롭게 조망하는 프로그램이다. 영국 출신의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가 '올해의 음악가'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보스트리지는 잘츠부르크와 에든버러, 올드버러 페스티벌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로열 오페라와 오스트레일리아 오페라 등 굴지의 오페라단에서 고전과 현대 레퍼토리를 넘나드는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역시 영국 출신의 지휘자 마이클 프랜시스가 서울시향의 지휘봉을 잡아 보스트리지와 안정된 호흡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드뷔시의 '세 개의 녹턴'을 시작으로 영국 레퍼토리가 무대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 보스트리지가 협연하는 브리튼의 '테너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녹턴'은 한국 초연곡으로 특히 기대를 모은다. 홀스트의 '행성'이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날짜·장소 3월 7일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서울시립교향악단 1588-1210



소프라노 다니엘 드 니스&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

소프라노 다니엘 드 니스의 첫 내한 공연이 펼쳐진다. 호주에서 태어난 드 니스는 9세에 호주의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불러 화제를 모았다. 미국으로 건너간 드 니스는 15세의 나이에 LA 오페라 무대에 서며 데뷔를 알렸고, 19세에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레 미제라블'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출연했다. 결정적인 기회는 2005년에 찾아왔다. 영국 글라인드본 오페라 페스티벌이 제작한 데이비드 맥비카 연출의 '줄리오 체사레'에서 소프라노 로즈마리 조슈아의 대타로 클레오파트라 역을 맡은 것이다. 이후 세계 주요 무대를 누비며 활약하고 있다. 이번 내한 공연에는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과 함께한다. 1부에서는 모차르트와 아르디티, 로시니의 아리아를 들려준다. 2부에서는 번스타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비롯해 유명 뮤지컬 넘버를 선사할 예정이다.

날짜·장소 3월 15일 | LG아트센터
문의 LG아트센터 02-2005-0114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

유럽 연합 유스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던 단원 13명이 성년이 되어 다시 뭉쳐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모든 연주를 초빙 지휘자와 진행하며, 음반사를 설립해 운영한다. 그동안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가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했다. 이번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 공연은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가 이끈다. 그리스 태생의 카바코스는 1988년 파가니니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탁월한 작품 해석 능력을 인정받았다. 2017-2018 시즌에는 암스테르담 로열 콘세르트헤바우와 빈 무지크페라인의 상주 음악가로 선정돼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27일에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슈베르트 교향곡 5번·베토벤 교향곡 3번 '에로이카'를, 28일에는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5번·모차르트 교향곡 38번·슈만 교향곡 2번을 선보인다.

날짜·장소 3월 27일~28일 | 롯데콘서트홀
문의 롯데콘서트홀 1544-7744



연극 **미저리**

연극 '미저리'는 작가 스티븐 킹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작품 속 베스트셀러 작가인 주인공 폴은 '미저리' 시리즈를 써서 큰 명성을 얻는다. 어느 날 폴은 자동차 전복 사고로 의식을 잃고 시골 외딴 집에서 눈을 뜬다. '미저리' 시리즈의 애독자인 간호사 애니가 폴을 구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작품 속 주인공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격분한다. 애니는 부상이 심한 폴에게 '미저리'를 새로 쓰도록 강요한다. 이 소설은 작가와 독자의 심리를 치밀하게 다루고 있다. 원작의 탄탄한 작품성을 인정하듯 1990년 개봉한 동명 영화와 2015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한 연극은 모두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공연에는 지난해 MBC 연기대상을 수상한 배우 김상중을 비롯해 배우 김승우와 이건명이 폴 역할을 맡는다. 폴의 열렬한 광팬인 애니 역은 배우 길해연·이지하·고수희가 연기한다. 실종된 폴을 수사하며 극 중 긴장감을 불어넣는 마을 보안관 버스터 역은 배우 고인배가 맡는다.

날짜·장소 ~4월 15일 |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문의 인터파크 1544-1555



연극 **가지**

지난해 국립극단이 재외 한인작가들의 작품을 연달아 소개한 '한민족디아스포라전'의 다섯 작품 중 가장 인기 있었던 '가지'가 다시 무대에 오른다. 작품을 쓴 줄리아 조는 LA에서 태어난 교포 2세로, 극작가 겸 드라마 작가로 활약하고 있다. 그가 만든 다수의 작품에는 이방인으로 살아온 서글픈 성장 경험이 녹아 있다. 연극 '가지'는 아버지와 진솔한 소통이 어려운 재미교포 2세의 이야기를 음식이라는 소재로 풀어냈다. 주인공 레이는 언어·성격·입맛 등 모든 면이 아버지와 확연히 다르다.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면서 가슴속에 묻어둔 기억이 점차 선명해진다. 이 작품은 초연 당시 빠른 입소문으로 매진 사례를 이뤘고, 제54회 동아연극상 작품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참여한 배우들 그대로 아버지 역은 배우 김재건이, 아들 레이 역은 배우 김종태가 맡는다. 동아연극상 연기상을 수상한 배우 김정호는 유쾌하고 따뜻한 삼촌 역을 연기한다.

날짜·장소 ~3월 18일 | 백성희장민호극장
문의 국립극단 1644-2003



뮤지컬 **명성황후**

23년의 세월 동안 변화와 실험을 거듭한 '명성황후'가 다시 무대에 오른다. '명성황후'의 원작은 소설가 이문열의 희곡 '여우사냥'이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당시 일본의 자객들은 대한제국의 황후를 죽이기 위해 이러한 작전명을 썼다고 한다. 이문열의 희곡은 명성황후 서거 100주년을 기리며 1995년 창작 뮤지컬로 재탄생했다. 허약한 국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과 정면으로 맞서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명성황후의 애처로운 삶을 사실적으로 담아냈다. 초연 당시에는 화려한 무대장치로 이목을 끌었다. 이후 국내 창작 뮤지컬로는 최초로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 무대에 올라 해외 언론의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주년 공연 때 위엄을 갖춘 명성황후 역으로 예그린뮤지컬어워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김소현이 이번 공연에 함께한다. 또한 뮤지컬 '시라노'에서 섬세한 연기를 선보인 배우 최현주도 명성황후 역으로 합류한다. 고종 역은 배우 양준모·손준호·박환이 나선다.

날짜·장소 3월 6일~4월 15일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주)에이콤 02-2250-5941

무용



유니버설발레단 **스페셜 갈라**

유니버설발레단은 이번 시즌 오프닝 공연으로 '스페셜 갈라'를 선택했다. 지난 2014년 창단 30주년을 기념해 처음 선보인 '스페셜 갈라'는 평소 한 자리에서 만나기 어려운 유수의 대작을 하이라이트로 엮어 대중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공연도 다양함과 새로움을 부여한 레퍼토리로 무대를 구성한다. 클래식 발레의 대표작인 '백조의 호수' '지젤' '돈키호테' '해적' 등이 오른다. 또한 창작발레 '발레 춘향', 나초 두아토의 '멀티플리시티', 드라마 발레 '오네긴', 마린스키 발레 버전의 '로미오와 줄리엣' 등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레이몬도 레벡의 '화이트 슬립' 전막과 안무가 반리리의 신작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무대에는 마린스키 발레의 수석무용수 블라디미르 시클리야로프와 마리아 시린키나가 함께 무대를 꾸민다. 발레를 처음 보는 초심자는 물론 오랜 시간 발레를 즐겨온 애호가까지 두루 만족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날짜·장소 3월 2~4일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유니버설발레단 070-7124-1737



국립발레단 **지젤**

국립발레단의 '지젤'이 3년 만에 돌아왔다. 국립발레단이 선보이는 '지젤'은 파리 오페라 발레에서 선보인 버전으로 깊은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 1841년 초연된 '지젤'은 당시 파리 오페라 극장의 발레 마스터 장 코랄리가 안무하고, 솔로 부분은 쥘 페로가 다듬었다. 이후 마린스키 극장의 예술감독 마리우스 프티파에 의해 1막에 지젤 솔로가 삽입됐고, 2막에는 윌리들의 군무가 구성돼 완전히 새로운 버전으로 재탄생했다. 지난 공연 때 국립발레단은 수준 높은 오리지널 버전을 선보이기 위해 파리 오페라 발레의 안무가인 파트리스 바르를 초청한 바 있다. 당시 파리 오페라 발레가 이어온 유서 깊은 레퍼토리를 안정적으로 공연해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국립발레단의 '지젤'은 알브레히트의 약혼자인 바틸드가 지젤의 이복자매로 나온다. 비극을 극대화해 드라마틱한 연기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2막에서 나오는 윌리들의 군무는 발레블랑의 진수를 보여준다.

날짜·장소 3월 21~25일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국립발레단 02-587-6181



마이클 키간 돌란 백조의 호수

아일랜드 출신 안무가인 마이클 키간 돌란의 '백조의 호수'가 한국을 찾는다. 작품은 세 가지 이야기를 골자로 한다. 전체적인 구조는 고전발레 '백조의 호수'와 같으나, 저주를 받아 백조가 된 네 자매의 이야기는 아일랜드의 전설 '리어의 아이들'을 차용했다. 여기에 주인공 지미의 캐릭터와 극 중 배경은 2000년 아일랜드를 떠들썩하게 한 '존 카티 사건'을 토대로 한다. 존 카티는 정부의 주택 철거 계획에 반발해 무장한 채 경찰과 대치하다 사살당한 인물이다. 작품에는 2명의 배우, 8명의 무용수, 3명의 연주자가 출연한다. 극을 이끌어가는 아일랜드의 영화배우 마이클 머피는 성직자와 정치인, 경찰 등 홀로 5인 역할을 소화한다. 텅 빈 무대 위에 사다리·시멘트 벽돌·검은 비닐 등 미니멀한 소품만 사용해 황량한 현실을 묘사한다. 3인조 밴드 슬로우 무빙 클라우드는 원작의 차이콥스키 음악을 대신해 노르웨이와 아일랜드의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흥겹고 서정적인 연주를 선보인다.

날짜·장소 3월 29~31일 | LG아트센터
문의 LG아트센터 02-2005-0114



신여성(표지화 안석주, 9월의 매력), 개벽사, 1933.9. 권진규미술관 소장

신여성 도착하다

2016년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혐오는 동시대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의 페미니즘을 이해하려면 신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신여성'은 19세기 말 서구에서 출현한 용어로 20세기 초에 아시아로 들어왔다. 영국에서는 신여성을 기존 남성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지만, 한국에서는 근대 문물을 추구하는 존재로 형상화했다. 이번 전시는 시각예술에 나타난 신여성 이미지를 재고해 한국 근대사를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회화·조각·영화·대중가요 등 500여 점의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소개한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남성 예술가들이나 대중매체가 재현한 신여성의 개념을 고찰한다. 2부는 창조적 주체로서 역할을 한 여성 미술가들을 만난다. 3부는 나혜석·김명순·주세죽·최승희·이난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여성 선각자들을 조명한다. 당대 신여성들이 추구한 독특한 이념을 재해석한 신작도 함께 선보인다.

날짜·장소 ~4월 1일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문의 국립현대미술관 02-2022-0600



알베르토 자코메티 한국특별전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는 인간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는 철학자 사르트르와 뜨거운 우정을 나누며 실존주의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이번 전시는 그의 고향 스위스에서 빚은 작품부터 프랑스에서 지낸 노년기의 작품까지 예술적 성장 과정을 오롯이 담는다. 제2차 세계대전을 온몸으로 체험한 그는 인간이라면 끔찍한 전쟁을 겪은 후에도 끊임없이 걸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작품에는 인간의 앙상한 형체가 표현되어 있다. 특히 사람의 두상 작업에 평상을 바쳤으며, 그중에서도 걸작으로 손꼽히는 디에고상과 아네트상을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다. 그가 죽기 전에 완성한 '로타르 좌상'도 선보일 예정이다. 1960년대 제작한 '걸어가는 사람'의 원본 작품은 아시아 최초로 전시돼 기대를 모은다. 그는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죽을 때까지 허름한 작업실을 떠나지 않았다. 자코메티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머문 7평 정도의 작업실도 재현될 예정이다.

날짜·장소 ~4월 15일 |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문의 코바나컨텐츠 02-532-4407


이창원, 4개도시 바그다드, 평양, 서울, 후쿠시마

두 번째 풍경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한 겹 벗겨져야 진실이 드러난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에 숨겨진 '두 번째 풍경'을 주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 9명은 삶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쳤다. 김상균은 자본주의 사회를 대변하는 인공적인 풍경을 담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에서 이미지를 수집·재조합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노충현은 동물원을 소재로 주변의 정치 상황에 좌우되는 인간 군상을 표현했다. 김기수는 광주대단지 사태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잘못된 압축 성장을 지적했다. 안창홍은 직접 키운 맨드라미 꽃밭을 작품에 담아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자라 소멸하기까지 수많은 요소가 어떻게 뒤엉켜 터를 잡는지 묘사했다. 이창원은 바그다드·평양·서울·후쿠시마 등 현실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방문하기에는 망설여지는 장소들을 담아냈다. 이외에도 황세준·홍순명·뮌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비판적 시각을 통해 삶의 방향을 가늠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날짜·장소 ~3월 25일 | 서울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문의 서울시립미술관 02-2124-5271

글 **장혜선** 바른 시선으로 무대를 영원히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자 부단히 글을 쓰고 있다.

티켓 예매 및 회원가입 안내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

국립극장 홈페이지 ntok.go.kr

예매 수수료 없음, 엔톡NTOK 회원 가입 시 최고 20% 할인율 제공

전화 및 현장 예매

콜센터 02-2280-4114(오전 9시~오후 6시, 연중무휴)

해오름극장 지층 고객지원센터 방문

할인 안내

종류	할인율		비고
엔톡NTOK 회원	최고 20%	1인 4매	국립극장 홈페이지 회원
문화융성카드		제한 없음	문화융성카드 결제 시 할인
임산부	20%	본인	산모수첩 소지자
다둥이 카드			다둥이카드 소지자
문화패스(청소년 등)	30%	본인	8세 이상 24세 이하, 대학생
예술인패스			예술인패스 소지자
경로	50%	본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대상자
장애유공자		1인 2매	복지카드 소지자

※공연별 할인율은 주최 단체에 따라 상이하며,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수령 시 증빙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극장 오시는 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하차 후 도보·버스 이용
지하철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하차 후 버스 이용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하차 후 버스 이용
간선버스 420	'국립극장' 정류장 하차
남산순환버스 02·03·05	'국립극장' 정류장 하차

무료 셔틀버스

공연 전

타는 곳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남산순환버스 정류장 앞

운행구간 3호선 동대입구역 → 국립극장

운행시간 공연 1시간 전부터 20분 전까지 10~15분 간격으로 운행

공연 후

타는 곳 해오름극장 앞 문화광장

운행구간 국립극장 → 3호선 동대입구역 →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운행시간 공연 종료 직후

주차 안내

국립극장에는 380여 대 수용 가능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연 관람 시 5시간 미만에 한해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요금 안내

공연 관람 시	사전 정산(극장 내 정산소·정산기 이용)	3천 원
	사후 정산(출차 시 티켓 제시)	4천 원
일반 이용	최초 30분 1천 원 이후 10분당 500원	

MIX

50
세계무대
전시 '오페라-열정, 권력
그리고 정치' 관람기

54
시즌인문학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의
작품 세계

58
우리 시대의 작곡가
김희조(1920~2003)

62
예술서적
'박철수의 거주 박물지'

전시 '오페라-열정, 권력 그리고 정치' 관람기

400년 오페라 역사를 만나다

서사와 음악이 공존하는 무대극 오페라는 유럽 사회의 번영·변화와 함께 발전해왔다. 일곱 편의 오페라 작품을 통해 400년 오페라 역사를 관통해 보는 전시가 런던에서 열렸다.



런던의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박물관이 '오페라-열정, 권력 그리고 정치Opera: Passion, Power and Politics'라는 제목의 대규모 전시를 기획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의구심에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음악-청각 중심의 공연을 시각 중심의 전시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미심쩍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갈수록 의구심은 더욱 커져갔다. 유럽의 주요 도시 일곱 곳에서 열린 일곱 편의 오페라 초연을 통해 오페라 400년사를 살펴보겠다니 야심만만하기 그지없다. 서둘러 티켓을 예매하고 전시장으로 향했다. 새로 개관한 세인즈베리 갤러리에서 진행된 전시회는 입구에서 모든 관람객에게 오디오 가이드부터 나눠준다. 번호를 일일이 눌러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관람자의 위치를 인식해 자동으로 해당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음악이 재생된다는 안내가 더해졌다.

문화와 사회적 맥락 속의 오페라

전시회장에 들어서자마자 헤드폰으로 몬테베르디 '포페아의 대관식' 중 네로와 포페아의 이중창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을 끌어안습니다pur ti miro, pur ti godo'가 들려온다. '포페아의 대관식'은 신화나 종교의 스토리를 차용해 권선징악을 가르치던 동시대 오페라와 달리 실존한 역사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데, 비도덕적이라 할 만큼 비틀어진 결말을 만들어냈다. 정부 포페아에 대한 로마 황제 네로의 욕망과 왕관을 향한 포페아의 야망을 숨김없이 드러낸 이 관능적인 오페라가 자유와 쾌락의 도시였던 1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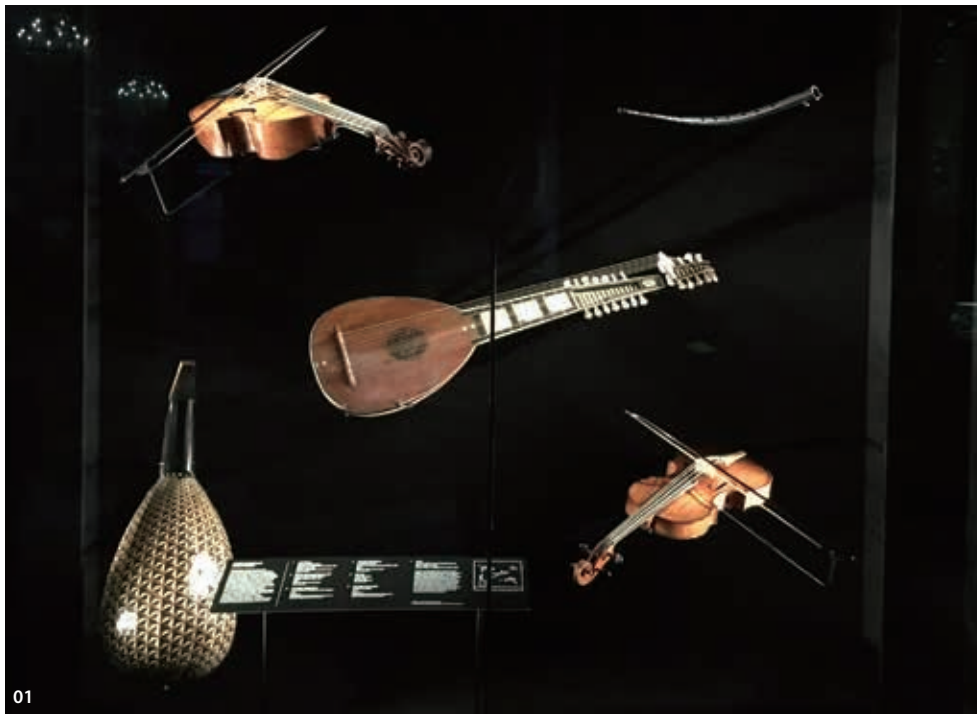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박물관 전시회
'오페라–열정, 권력 그리고 정치'

기 베니스의 산물이었다고 전시회는 말한다. 왕정체제가 아닌 공화국이라는 정치제도 덕에 베니스는 이례적인 자유를 누렸고, 여기에 향락과 도박, 매춘, 그리고 공연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네로와 포페아의 끈적한 밀어를 들으며 사치스러운 베네치안 글라스가 차려진 식탁, 화려한 색감의 옷을 입고 도박을 하는 무리를 묘사한 그림, 베니스 고급 매춘부의 의상을 재해석한 붉은 의상 사이를 거닐다 보니 데카당스한 베니스를 상상하게 된다. 전시는 향락에 대한 욕망이 절정에 이르던 카니발 기간으로 관람객을 이끈다. 카니발을 찾은 관광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왕과 귀족의 전유물이던 오페라를 상업 극장에서 선보이기 시작한 것도 베니스가 최초이며, '포페아의 대관식' 역시 1642년 카니발 기간에 초연된 까닭이다. 콘서트를 준비 중인 음악가들의 그림과 함께 전시된 하프시코드와 테오르보, 트레블 비올과 같은 바로크 악기들은 당시 극장에서 연주되었을 초기 오페라의 음악을 담고 있다.

다음 전시관은 앤 여왕의 통치 아래 안정과 번영을 누리던 1711년 런던이다. 당시 런던은 유럽 최대 도시이자 주요 무역항으로 이국적인 문물이 쏟아져 들어왔고 기회를 찾아 물밀 듯 모여든 외국인들로 북적였다. 이러한 흐름에서 이탈리아 오페라가 수입되었고, 마침 런던을 찾은 독일인 헨델은 이 장르를 완전히 정착시키는 데 일조한다. 이탈리아 오페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무대와 스타 가수가 필수적이었다. 전시장 한편에 복원된 헨델의 첫 런던 오페라 '리날도' 무대는 당시의 복잡한 무대장치를 보여준다. 전시장의 무대 앞을 서성이자 인어들의 합창 소리와 더불어 거센 파도를 뚫고 십자군 리날도를 실은 배와 리날도를 유혹하려는 인어들이 등장한다. 무대 맞은편에는 당시 스타 가수였던 카스트라토에 대한 예찬과 비난의 목소리를 나란히 전시해 문화 간 교류에 따른 필연적인 충돌을 이야기했다.

세 번째 전시관은 먼저 작곡가의 삶을 공들여 그려낸다. 개혁의 열기로 꿈틀거리던 1786년 초연된 '피가로의 결혼'은 모차르트의 삶의 궤적과 그가 경험한 시대적·정치적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차르트의 광범위한 여행 경로가 표시된 지도, 연인에게 보내는 장난스러운 편지, 서명이 남겨진 프리메이슨 방명록 등을 통해 묘사되는 모차르트는 지적이고 영민하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와 무관하게 부여된 공고한 사회계급의 불합리함에 깊은 반감을 지녔고, 이런 반감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이론, 즉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을 사로잡은 계몽주의 사상에 공감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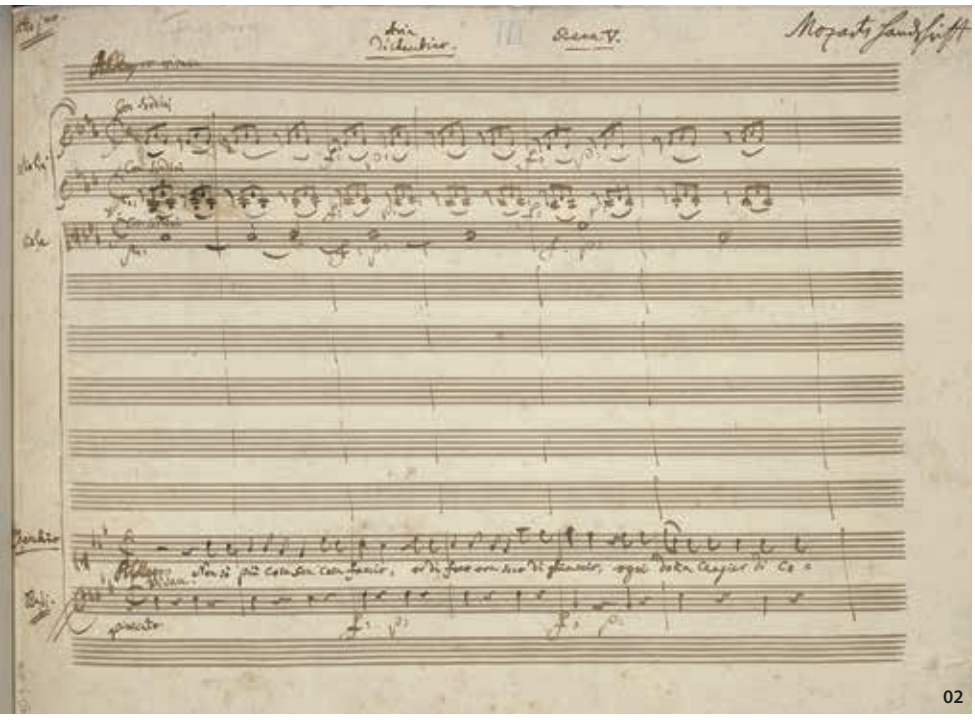
01

이런 모차르트의 캐릭터는 '피가로의 결혼'의 유쾌하고 활기찬 음악에 묵직하게 깃들어 있다. 기존 오페라에서 웃음거리에 불과하던 하층계급이 극을 이끌어나갈 뿐 아니라 넘치는 기지로 지배계급을 뛰어넘는다는 줄거리는 계몽군주를 자처하던 요세프 2세 치하에 있던 빈의 관객에게는 마치 당대 사회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았을 지도 모른다.

눈부시게 위대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과 모차르트의 쓸쓸한 죽음을 견주며 응시하던 그의 마지막 초상화에서 눈을 돌리니 케루비노의 아리아 'Non so piu cosa son'의 자필 악보가 보인다. 악보를 자세히 보려 고개를 숙이자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상임 지휘자 안토니오 파파노가 아리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한다. 이어 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로톨리가 부르는 아리아를 들으며 모차르트가 그린 음표를 하나하나 따라가려니 마치 그 시절, 빈의 활기 넘치는 모차르트 옆에 서 있는 듯, 그의 음악이 한결 가깝게 들린다.

이어지는 두 전시관은 앞선 도시들에 비해 비교적 평이하다는 인상을 준다. 1842년 밀라노에서는 오페라 '나부코'가 오스트리아의 압제를 받던 북부 이탈리아에서 저항운동의 상징이 되고, 이후 리소르지멘토, 즉 이탈리아 통일운동까지 연결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이탈리아의 형제들Fratelli d'Italia'이라는 (이탈리아 국가와 같은) 제목의 거

01
17세기 사용되던 바로크 악기들
©황정원



02

대한 설치물은 이탈리아의 150개 오페라 극장을 선보이는데, 그 사이로 잃어버린 조국을 그리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들려와 강한 인상을 남긴다.

단 세 번의 공연 끝에 막을 내린 프랑스판 '탄호이저'는 1861년 파리 초연의 처참한 실패 요인을 하나하나 되짚는 것으로 19세기 오페라 세계의 중심이던 파리 오페라계의 전통과 관습, 예술과 무관한 정치적 알력, 바그너의 '새로운 음악'을 풀어냈다.

욕망에 솔직한 강한 여성들의 등장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라는 마태복음서 14장의 짧은 구절은 세기말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 '살로메'로 재탄생해 유럽 전역을 충격에 몰아넣는다. '헤로디아의 딸'일 뿐, 이름도 없던 성경 속 10대 소녀를 중심에 놓은 이 희곡은 당시 '살로매니아Salomania'라는 현상을 만들어낼 만큼 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그 덕택에 1905년 초연된 '살로메'의 전시관은 드레스덴·빈·파리·런던 등 유럽 각지에서 조달해 온 다양한 형태의 풍성한 자료를 통해 당시의 충격과 환호를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02
'피가로의 결혼' 중 케루비노의 아리아 'Non so più cosa son'의 모차르트 자필 악보
©British Library, London, UK
Bridgeman Images

영국판 극본에 삽입된 오브리 피어즐리의 삽화들은 아르누보 스타일로 세기말적인 이미지의 살로메를 연출한다. 슈트라우스가 아이디어와 악상을 빼곡히 필기한 독어판 극본 '살로메' 옆으로 "종교와 윤리적인 이유로" 빈의 초연을 불허하는 검열 편지가 보인다. 로뎅의 '세례자 요한의 머리'와 함께 로열 오페라 하우스 프로덕션을 위한 살바도르 달리의 의상 스케치, 스칼라 극장을 위해 잔니 베르사체가 작업한 헤로디아스의 의상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나아가 오페라의 폭발적인 성공을 당시 사회상과 설득력 있게 연결 짓는다. 19세기 말 유럽 사회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으로 대표되는 심리학·섹슈얼리티·히스테리와 같은 개념에 경도되어 있었다. 깃발을 짊어지고 당찬 발걸음을 내디디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제1회 국제 여성의 날' 포스터가 보여주듯 이 시기는 페미니즘이 태동하던 때이기도 하다. 여성의 권리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사회 인식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오페라에도 살로메같이 욕망에 충실한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런 현상은 마지막 오페라, 1934년 레닌그라드에서 초연된 쇼스타코비치의 '므첸스크의 맥베스 부인'과도 연결된다.

살아 있는 오페라로 확장된 전시

단 일곱 편의 오페라로 방대한 400년 오페라 역사를 말한다는 것은 물론 매우 아득한 이야기다. 그러나 '오페라-열정, 권력 그리고 정치' 전시는 모든 면에서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다. 오페라를 잘 모르는 이에게는 훌륭한 입문서가 될 만큼 친절하고, 오페라를 즐기는 이에게는 그들이 지닌 단편적인 지식을 하나로 엮는 큰 그림을 그려줄 정도로 대범하다. 무엇보다도 신중히 선별된 그림·조각·의복·악기·설치미술·공연 영상 등 다채로운 매체는 오페라를 둘러싼 정치·사회·시대정신이라는 거미줄을 촘촘하게 엮어냈다. 그 중심에 오른 오페라는 가상현실의 세계처럼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다가온다.

전시 전체가 로열 오페라 하우스와의 밀접한 협업을 통해 이뤄진 만큼 전시보다는 한 편의 오페라를 경험한 기분마저 든다. 특히 전시된 일곱 편의 오페라 중 두 편, '살로메'와 '므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을 전시 기간과 비슷한 시기에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해 전시를 통해 얻은 이해가 실제 오페라를 감상하는 데 연결될 수 있도록 한 용의주도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글 **황정원** 런던에 거주하며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에서 오페라 연구로 음악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의 작품 세계

자연, 본능, 자유와 좌절의 기록

스페인의 작가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는 대지의 신비와 시대의 혼돈, 인간 존재의 좌절을 체화해 작품으로 표현했다. 그는 독창적인 감각과 인간 보편의 주제로 시와 시극을 넘나들고 변화를 위해 움직인 작가다.

안달루시아가 피운 예술의 감각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Federico Garcia Lorca(1898~1936)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의 그라나다로부터 20km 떨어진 푸엔테바케로스 마을에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곳의 자연과 사물에 큰 호기심을 느끼면서 자랐고, 이는 그가 문인으로 성장하는 데 절대적으로 작용했다. 다시스라는 유럽 최초의 문명이 존재한 안달루시아는 태고의 신비와 땅의 귀신인 두엔데를 품고 있는 곳이다. 비제의 오페라를 통해 기타와 탬버린, 집시와 플라멩코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힘을 지닌,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춤과 음악이 있는 죽음의 대지가 바로 안달루시아다. 이성이 아니라 감각으로 느껴야 하고, 이야기가 아니라 암시를 통한 느낌을 가져야 하는 그 대지에 대한 작가의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이 별스럽다.

난 완전히 자연 속에 파묻혀 살았다. 난 그곳에서 나의 개성까지 얻었다. 나는 그것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을 사랑했다.(…) 나의 유년 시절은 시골에서 이루어졌다. 목동과 들판과 하늘과 고독. 한마디로 참으로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이었다. 난 사람들이 내 작품에 배어 있는 정취를 시인 개인의 가상 모험담으로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다. 그건 내가 피부로 느꼈기에 내게 남겨진 진실된 이야기다.(…) 나의 예술 세계를 이룬 최초의 경이로움은 나의 대지에서 나왔다.(…) 이런 대지에 대한 나의 사랑이 없었다면 난 '피의 혼례'를, '예르마'를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로르카는 안달루시아의 아주 오래된 문화와 원시시대의 신비를 피부로 느끼면서 예술 감각을 키웠는데, 여기에는 어머니 외에 또 다른 조력자가 있었다. 집안일을 돌보던 하녀 돌로레스다. 그녀는 로르카에게 그라나다 농부의 삶과 집시의 민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스페인 시 로망스를 가르쳐주었다. 또 어린 로르카가 그라나다에서 사온 인형으로 극을 상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로르카는 그녀와 함께 나무나 합판으로 만든 인형을 어떻게 움직이고 말하게 하는지 동네 아이들과 하녀들에게 가르쳐주며 관객을 매혹하는 방법을 습득해갔다.

1909년 로르카의 가족은 고향을 떠나 그라나다로 간다. 그라나다는 아랍 문화와 고대 그리스 로마, 그리고 집시 문화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다. 그 매력은 로르카의 얼을 빼놓을 만큼 대단했고, 그 속에서 로르카는 자기의 꿈을 이루는 데 관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그라나다는 음악으로도 유명해, 로르카는 국립음악학교에서 돈 안토니오 세구라 선생 밑에서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성장했다. 피아노 수업을 위해 프랑스로 가려던 그의 꿈은 아버지의 반대로 무너졌지만, 스페인의 유명한 기타 음악 작곡가이자 연주가인 마누엘 파야를 알게 되었고, 그와의 친분은 로르카의 작품 세계에 깊고도 큰 흔적을 남긴다. 스페인 전통음악에 관심을 가졌던 파야와 로르카의 만남은 로르카의 플라멩코 노래 시집 '칸데 혼도'(1922)를 탄생시켰고, 극작품에는 극적미과 상징성을 더해주었다. '예르마'나 '피의 혼례'에서 합창이나 노래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작품의 의미와 맛을 잃을 정도로 음악의 비중이 높다.



"극은 책으로부터 일어나 인간이 되는 시"

대학에서는 문학과 법학을 전공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과 기타 수업 및 문화 활동으로 바쁜 나머지 모범생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의 활달한 성격과 문학에 대한 사랑은 당시 문화계를 이끈 지성인 화가·시인·기자들과의 만남으로 봇물이 터진다. 이들과의 주기적인 만남은 문인으로 준비 단계에 있던 로르카에게 상당한 자극이 되었던 것 같다. 이들의 격려에 힘입어 로르카는 자신의 첫 시집 '인상과 풍경'(1918)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 책에서 우리는 그라나다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낭만적이며 육감적인 산문으로 칭송되다가, 너무나 대조적으로 꿈이라곤 전혀 없는 수도원 사람들이나 먼지로 뒤덮인 거리와 무거운 침묵에 눌려 삶의 위안이라고는 느낄 수 없는 마을 풍경 뒤로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로르카, 그래서 본능적으로 더욱 더 살고자 갈망하는 작가를 만나게 된다.

같은 해 문학에 대한 그의 애착과 열정은 그를 마드리드로 이끈다. 당시 스페인 지성의 요람인 '학생 기숙사'에 머물면서 초현실주의 영화감독 루이 브뉴엘, 화가 살바도르 달리, 유럽 아방가르드의 대가인 마리네티와 브르통을 알게 되고, 세기의 자유정신에 입각해 지성인과 과학자를 키워낸 '자유교육협회'에 등록해 자유 정신을 옹호하는 문인으로 알려지게 된다. 이렇게 인간 존재의 자유, 인간 본능에 대한 외침으로 이루어진 그의 삶은 그의 문학작품에 그대로 반영된다.

'시'(1921), '노래집'(1927), '집시 가곡집'(1928), '칸테 혼도'(1931), '이그나시오 산체스 메히야스의 죽음을 통곡하며'(1934), '뉴욕에서의 시인'(1935), '타마릿 시집'(1936), '어두운 사랑의 소네트'(1936) 등은 신비하고도 아름답고 그러면서도 격정적인 시 작품들이다. 그의 열정은 시세계로 만족될 수 없었다. 어릴 적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길에서 보게 된 인형극의 매력은 그의 삶 내내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시세계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스페인 연극사에서 시극을 창시한 인물이자 인형극을 부활시킨 자로, 비극이 불가능한 현대에 옛 그리스비극의 정수를 부활시킨 극작가로 기록된다. 작품으로 '나비의 저주'(1920), '돈 크리스토발의 재단 병풍'(1923), '마리아나 페네다'(1925), '경이로운 여자구두 수선공'(1930), '돈크리스토발과 로시타 처녀의 희비극'(1931), '관중'(1930), '돈 페르림플린과



벨리사와의 정원에서의 사랑'(1931), '이렇게 5년은 흘러가려는가'(1931), '피의 혼례'(1933), '예르마'(1934), '독신녀 도냐 로시타 또는 꽃들의 언어'(1935), 그리고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1936)이 있다. 현실과 상상, 시와 극의 경계를 넘나들며 서정성과 상징성으로 점철된, 독창적이고 극적인 작품들이다. 그는 극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극은 하느님에 내게 주신 선물과 같았다.(…) 극은 책으로부터 일어나 인간이 되는 시다. 인간이 될 때 말을 하고 외치고 울고 절망한다. 극은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시의 옷을 입을 필요가 있고 동시에 그들의 뼈와 살이 보여져야 한다. 너무나 인간적이라서 무서울 정도로 비극적이어야 하고 삶 자체여야 한다.

이 말을 증명이나 하듯 여성의 존재 이유를 모성애에 두고 본능과 지독한 싸움을 벌이는 '3막 6장으로 된 비극 시'인 '예르마'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예르마'는 비극이다. 진정한 의미로 비극이다. 첫 장면부터 관객은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 '예르마'는 줄거리가 없다. 작품을 이룬 여섯 장이 흐르는 동안 그저 전개되어 나갈 뿐이다. 서정성을 살리고 비극에 맞도록 사건을 알리는 합창을 작품에 끌어넣었다.

여성의 수태를 소재로 한 에우리피데스의 그리스비극 '헤카베'나 '메데이아' '엘렉트라' '이피게네이아', 세네카의 고대 로마 비극 '메데이아'보다 더 열정적이고 훨씬 서정적인 '예르마'는 1934년 처음으로 무대에 오른 후 150회를 거듭해 상연되었고, 순회공연으로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

시대의 억압과 인간의 좌절을 표현한 작가

로르카는 창작 활동에만 안주하지 않고 대중과 스페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대학생들로 구성된 '움집'이라는 순회공연 극단을 창단했다. 스페인 고전극을 시대에 맞게 현실화하고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작해, 당시 가난하고 무지한 스페인 국민에게 스페인 문화의 정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리기 위해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다. 이런 그에게 영혼을 갉아먹는 고민이 있었다.

내 뒤로 무엇이 있단 말인가? 삶에서 내 영혼은 어떤 죽음을 갖고 있는가?(…) 나의 영혼에서 싸우는 삶과 고뇌의 두 유령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이 내 심장에서 불순한 망토를 벗기려 절망적으로 싸우지만 피와 열기로 가득한 나의 육신은 정열의 불꽃 위로 몸을 던진다. 열정이 나의 심장을 삼켜 그것을 슬픔과 한없는 우수로 가득 채운다.

로르카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의 유쾌한 성격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언제나 무언가에 괴로워하고 알지 못할 우수에 차 있었다고 증언한다. 이를 두고 로르카의 친구이자 동성애자인 블랑코 아모르는 그를 가장 잘 이해한 듯 이렇게 적고 있다.

로르카의 천재성을 가리고 그의 삶과 작품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꽃피웠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탁한 물감으로부터 언젠가는 그를 구해내야 할 것이다.

스무 살의 로르카가 자기의 성적 본능이 잘못된 것이라는 죄의식에 눌려 신에게 항거하려 했을 때 그에게 단이슬처럼 다가간 글이 있다. 당시 스페인 사상가이자 문인인 우나무노가 1918년에 쓴 '고독'이다.

수치란 문화의 소산물로 사회에 따라 다양하다. 우리가 발가벗고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생각은 불가능할 것이지만, 만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다니고, 날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산 사람들이 있는 나라로 간다면 그곳에서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로르카는 자기 것이 아닌 도덕이 강요하며,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 규정에서 해방되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날을 희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갈망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의 재능에 눈감아버린 자들은 그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인물로 낙인찍어 1936년 스페인 내란 발발 직후인 1936년 8월 19일 새벽녘, '라 콜로니아'로 불리는 집으로 그를 끌어갔다. 로르카는 다리가 하나 없는 전직 학교 선생과 두 명의 전직 투우사와 함께, 브스나르와 알파카르 도로 사이에 있는 어느 한 곳에서 총살됐다. 아직 그의 주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로르카는 자신이 살고 겪었던 존재의 좌절을 감각으로 성숙시켜 세상에 내보였다. 안달루시아의 자연과 그 땅의 영혼에 결부해 원시적·신화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힘 있는 은유의 옷을 입혀 어떤 인간이든 지니고 있을 가장 심오한, 하지만 보편적인 테마를 보여주었다. 결국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내야 할, 인간이라면 가장 두려워할, 우리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성, 소외, 고독 그리고 죽음의 문제다. 그래서 그의 극은 우리에게 가식의 가면을 벗도록 하고, 그러기에 현대를 사는 우리의 가슴에 진실한 비극으로 다가오는지 모른다.

글 **안영옥** 고려대학교 스페인어문학과 교수.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돈키호테를 읽다'를 비롯해 스페인과 스페인 문학에 대한 책을 다수 짓고 번역했다.
그림 **정지영** 일러스트레이터

김희조(1920~2003)

‘국악과 양악은 김희조를 통해 만났다’

우리 음악과 서양음악이 혼재된 시기 국악기와
서양악기를 함께 사용해 한·양 합주를 개척한 김희조.
20세기 창작의 역사에서 교각과 같은 존재다.



17현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춘설'은 원래 황병기가 1991년에 작곡한 독주곡인데, 김희조(1920~2003)가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이 함께하도록 편곡했다. 이 곡은 오늘날에도 독주 형태와 협주 형태로 무대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다. 1967년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임원식이 지휘하는 KBS교향악단이 가야금 협주곡 '숲'을 연주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곡도 원래 황병기에 의해 가야금 독주곡으로 태어났는데, 김희조가 편곡해 서양 오케스트라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희조는 1920년생이고, 황병기는 1936년생이다. 음악계에서 한참 손아래인 후배 음악가의 작품을 선배가 '편곡'했다는 점에서 김희조는 작곡가로서 자존심이 없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 이도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김희조, 그에게 편곡은 연금술과 같았다. 판소리·민요·산조에 그의 손이 닿을 때, 그 음악들은 제 뿌리를 유지하면서도 다시 태어났다. 그뿐만 아니라 야금술을 통해 뮤지컬·영화음악·무용음악 등에서 한국적 소리와 음률을 뽑아냈다. 그런 그는 국악과 양악이 혼재된 20세기 한국음악 창작의 역사에서 '교각'과도 같은 존재이기도 했다. 서양악기와 국악기, 동·서의 음계와 조성이 그의 오선보 위에서 만났다.

서양음악 독학자, 국악을 만나다

김희조와 황병기의 공통점이라면 음악대학에서 정규 수업을 받은 적이 없는 음악가라는 점일 것이다. 서울에서 태어난 김희조는 1939년에 동성상업학교를 졸업한 후에 한성은행에서 5년간 근무했다. 음악에 대한 동경을 버리지 못하던 그는 월급을 쪼개, 김홍조에게 피아노를, 안성교에게 비올라를, 안병소에게 바이올린을 배웠다. 1943년부터 광복 전까지는 김순남으로부터 작곡법을 배웠다.

1945년에 조선호텔의 실내악단과 7인조 구성의 경음악단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던 그는 광복 후에 현제명이 조직한 고려교향악단(서울시향 전신)의 비올라와 콘트라베이스 주자로 활동했다.

그런 그가 국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48년부터 1957년까지 육군군악대 군악대장 시절이다. 당시 군대 음악 대부분이 '성조기여 영원하라'와 같은 미국이나 독일의 행진곡뿐이던 상황에서, 문득 '육군이 왜 외국 곡들만 연주해야 하는가' 의문이 생긴 것이다. 그때부터 김희조는 한국의 곡조를 살린 음악을 작곡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음반점에서 국악 음반을 장만해 들었다. 특히 서양음악에 없는 리듬은 그간 서양음악을 연주하던 그에게 신세계로 다가왔다. 산조에 심취했고 음악들을 악보화(채보)했다. 군가를 작곡하는 한편 민요 '방아타령'을 브라스밴드 곡으로 바꾸는 편곡 작업도 활발히 했다.

1957년 전역 후에도 민요를 소재로 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1958년부터 KBS관현악단(방송실내관현악단) 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민요를 채집해 악보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했고, 이것들을 관현악곡과 합창곡으로 편곡해 널리 보급했다. 그의 손을 거친 '아리랑' '베틀가' '옹헤야' '한강수 타령' 등은 민요합창의 선풍을 일으켰다. 이 곡들은 '한국민요합창곡집'(1991), '혼성합창을 위한 팔도민요'(2013)에 담겨 오늘날에도 자주 불린다.

이 시기에 민요 편곡 외에 피리와 관현악을 위한 민요 스케치(1957), 단소와 관현악을 위한 수상곡(1958), 가야금 산조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1958) 등 국악기와 양악이 만나는 작품을 작곡하기도 했다.

연금술 같은 편곡, 야금술로서의 작곡

1960년대의 국악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1959년 서울대 국악과 설립과 함께 창작국악의 움직임이 커지기 시작했고, 국립국악원은 1962년부터 '신新국악'을 공모했다. 하지만 '국악 작곡법'이란 것이 정립되지 않은 시절이었다. 송방송은 '한국음악통사'에서 당시의 신국악을 이끈 그룹과 작품 경향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그 한계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서울대 국악과 출신의 작품이다. 대체로 서양음악의 형식을 차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는 국악사양성소 출신들의 작품이다. 전통음악의 선율을 모방해 관현악·실내악으로 편곡하는 수준을 못 벗어났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는 국악예술학교(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그룹이다. 1960년에 설립된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한 명인들은 창작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그들 역시 두 번째 경우처럼 전통음악을 모방하고 편곡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1963년에 국악예술학교 교사로 활동하던 김희조도 현재의 관점으로 보면 이러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신국악'은 20세기 초의 '신소설'처럼 예술성보다는 창작의 중요성을 의식한 작곡가들로 말미암아 계몽적 성격을 보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어쨌든 김희조에게 1960년대는 물고기가 노니는 물과 같았다. 1962년 예그린악단에서 작·편곡자로 활약했고, 1963년에 국악예술학교 양악 담당 교사로 재직했다. 김영재(작곡·해금)와 박범훈(작곡·지휘·피리)은 이때 만난

제자들이다. 1965년에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과 함께 작·편곡자로 입단했고, 1968년부터 1973년까지 이 악단의 지휘자로도 활동했다. 모든 곳이 그의 '실험실'이었고, 장르 역시 영화·무용·뮤지컬 등으로 다양했다.

그는 민속음악과 국악관현악의 접점을 찾는 실험을 부지런히 행했다. 김죽파·서용석·윤윤석·한일섭 등 명인들의 산조를 소재로 여러 곡의 산조 협주곡을 작·편곡했다. 이 중 1967년에 발표한 '창과 관현악-범피중류'는 이러한 실험이 낳은 성과 중 하나다. 오늘날에도 꾸준히 연주되는 이 곡은 '작품'보다는 판소리와 관현악이 만나는 '형식'의 창조에 더 의미가 있는 곡이다. 그가 유행시킨 '창과 관현악'이라는 장르는 이후 관현악단 공연에 단골 레퍼토리로 등장했다. 김희조가 유행시킨 '창과 관현악'이라는 장르는 1980년대에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창'은 판소리를 넘어 민요까지 아울렀다.

판소리든 민요든 김희조가 창과 관현악이 만나게 하는 형식은 대개 비슷하다. 일단 원곡에 없는 전주와 간주가 삽입되어 관현악이 이 대목들을 연주하고, 관현악단만이 낼 수 있는 거대한 음향으로 분위기를 중간중간 고조시켰다. 또한 관현악을 일구는 악기들이 연주할 수 있는 음역과 음정에 의해 창자의 청(음고)이 달라지기도 했다.

1973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을 나온 그는 1974년 '국립가무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예그린악단의 초대 단장으로 취임했다. 1968년에 선보인 뮤지컬 '대춘향전'을 비롯해 '시집가는 날'(1974) '상록수'(1975) '심청전'(1976) 등의 음악을 작곡해 공연했다. 대부분 고전에 바탕을 둔 작품이다.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지만 이를 한국적으로 정착시키고 소화해서 새로운 한국적 뮤지컬로 거듭나게 한 것이다. 단장직을 4년간 맡은 그는 이후 서울예술대 국악과 교수로 6년간 재직했다.

여러 소리를 담아 '합合'한 합주곡 시리즈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서 민요·산조·판소리 등의 민속악과 관현악의 만남에 열정을 쏟던 그가, 편곡자의 모습에 가려졌던 작곡가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낸 것은 합주곡 1번(1982)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오랫동안 여러 부류의 민속음악을 편곡해온 과정은 자신의 악상이 담긴 합주곡 1번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곡의 얼개를 이루는 민속 장단, 다양한 변주의 옷을 입으며 섬세히 변하는 현악기군의 색채, 관현악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즉흥성 등은 이 곡을 '합주곡 1번'이라 쓰고, '현대적 시나위'라 읽게 한다.

합주곡 1번은 2번(1983)·3번(1987)·4번(1988) 등을 낳을 수 있게 한 씨앗과도 같았고, 1999년에 제11번으로 완

01
1954년, 조선호텔 String Quartet 연주 모습이다. 김희조는 비올라를 연주했다.

02
제2군가 발표음악회 연주 후 목에 화환을 걸고 있다.

03
1955년, 제2군가 발표 음악회에서 지휘를 하고 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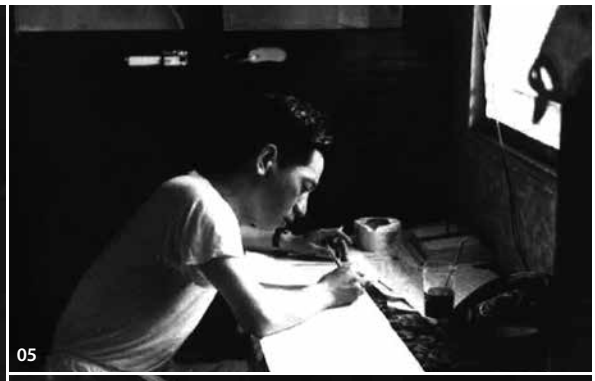

02



03



04



05



06

결되는 합주곡 시리즈의 주춧돌과도 같았다. 그가 합주곡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쏟아내던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그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김희조의 음악세계'(1993), KBS국악관현악단의 '김희조의 음악 이야기'(1998) 등을 통해 끊임없이 조명되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합주곡 시리즈를 통해 꾸준히 작품을 현장에 토해내는 현역으로 활동했다. 11곡에 달하는 그의 합주곡은 1999년에 발간한 '김희조 합주곡 전집'에 담겨 있다.

'남에는 김희조, 북에는 김순남'에서 윤중강은 "그의 관현악곡의 능숙함과 민속음악에 대한 해박함을 느끼게 되며, 특히 선율과 장단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천의무봉'에 비유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합주곡 1번·3번·4번이 무대에 자주 오른다. 4번에는 1번·2번·3번에 담긴 노련미와 세련미가 응집되어 있기도 하다. 2016년 국립국악관현악단 '마스터피스' 공연에는 '김희조 주제의 합주곡 1번 2016'이 위촉·초연되었다. 그의 제자인 김만석이 선생의 '명작'을 토대로 한 오마주였다.

김희조는 생전에 "국악·양악·클래식·경음악·정악·민속악 등의 관념적 구분이 별 의미를 주지 않는다"며, "소리들이 어우러지는 신비스러운 세계"와 그 "어울림"이 자신의 음악 행위를 자극할 뿐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세상의 음악은 보이지 않는 경계를 세워도, 그는 그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했다.

그러는 가운데에도 그의 예술적 뿌리는 늘 민족적 선율과 장단에 두고 있었고, 소박한 관현악법으로 대중에게 다가갔다. 1990년 남북 체육회담에서 아리랑을 단일팀 단가로 하기로 합의했다. 분단 후 들어보지 못한 북한의 아리랑과 남한의 아리랑을 토대로 '우리'의 아리랑을 만들기로 했을 때, 김희조가 편곡을 맡았다. 그의 음악 속에는 남과 북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글 **송현민** 음악평론가. 음악을 듣고 글을 쓰며 부지런히 객석과 책상을 오가고 있다. 급변하는 음악 생태계에 대한 충실한 '기록'이 미래를 '기획'하는 자료가 된다는 믿음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 제공 **도서출판 민속원** | 그림 **권준** 일러스트레이터

참고문헌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일조각, 1998.
윤중강·김용현 '북에는 김순남 남에는 김희조', 민속원, 2002.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 시공사, 1999.

음반 'KBS FM 한국의 전통음악-김희조 작품집'

작곡가 생전인 1995년에 나온 앨범이다. 그의 음악적 고향과도 같은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이 2002년 실황 녹음을 통해 김희조의 작품을 두 장의 CD에 담기도 했지만, 김희조 특유의 잡식성을 체감하는 데에는 KBS국악관현악단이 연주를 맡은 이 음반의 구성이 가장 좋다. 창과 관현악을 위한 '심청가'의 두 대목·합주곡 3번·산조 주제에 의한 합주곡·플루트와 국악합주·노래 '술비소리'가 담겨 있다.

04
오페라 '일 트로바트레' 지휘 후 출연자들과 함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김희조다.

05
이문동 집에서 작곡하는 모습. 1963년 촬영한 사진이다.

06
KBS 남산 TV방송국 개국 당시의 김희조.

‘박철수의 거주 박물지’

몸으로 살아낸 집의 기억에 맥락을 붙이다

도시·건축·주거 이슈를 문화적으로 읽고 눈높이에서 써 내려가는 작업이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 ‘박철수의 거주 박물지’는 집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단편적인 기억을 역사적 맥락으로 이어주는 반가운 책이다.



내가 기억하는 첫 번째 집은 'ㅁ'자 모양의 한옥이었다. 가운데 마당을 두고, 주인집을 제외한 각 면에 세입자들이 살았다. 낮은 부엌으로 내려가 준비한 밥상을 안방에 난 작은 창문으로 날랐다. 부엌의 위쪽은 다락이어서, 공간을 제법 잘 활용한 구조였다. 공동화장실은 재래식이었는데 이상하게도 화장실을 사용한 기억은 없다. 일하던 식모 언니가 화장실에 빠져서 구하느라고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일만은 기억한다. 이 집은 50년 가까이 된 현재 게스트하우스가 되어 있는데, 내부가 예전 그 형태일지 궁금하다.

그다음 살았던 집은 길쭉한 양옥이었다. 방은 두 개인데 긴 복도가 있었고 한쪽 복도의 유리창을 열면 기와지붕들이 내려다보였다. 지하실에 연탄보일러가 있어, 연탄 갈기 쉽게 하느라 부엌 바닥에 문을 냈다. 바로 엎드려 연탄을 갈 수 있는 구조였다. 이 집에도 다락이 있었다. 이전의 집에서는 어려서 다락을 올라갈 수 없었는데 그새 자라서 이곳의 다락을 쥐 풀방구리 드나들 듯했다.

내 성장기는 서울의 집들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의 한 복판을 거쳐 왔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던 잠실주공아파트를 옛 서울을 찍은 사진 전시회에서 발견했을 때는, 내가 그토록 멀리 떨어져 나왔나 싶어 새삼스러웠다. 아파트인데도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낮은 부엌이 있던 곳.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는 앞마당. 길게 늘어선 버스 줄. 중풍이 온 할아버지가 비척대면서도 산책 삼아 걸으시던 뚝방길. 대치동 은마아파트 시절은 또 어땠나. 시내에서 아파트까지 가는 길은 비포장도로라 버스는 덜컥거리며 달렸고, 사방에 논과 밭이 널려 있었다. 광화문 근처에 살다가 온 서울 촌년인 나는 그곳에서 시골아이처럼 뛰어놀았다.

'박철수의 거주 박물지'를 읽으며 나는 단편적인 기억을 불러오고 이름 붙이고 제자리에 갖다둔다. 이미 식모는 사라진 시절에 살게 된 설악아파트에 붙어 있던 식모방, 그곳의 복도에 있던 낡은 철제문의 더스트 슈트, 아파트 단지에 있던 옥외수영장, 초라한 살림을 나르던 곤돌라. 이제는 없는 것들이 당연하던 시절의 풍경은 "그때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영상이나 사진, 혹은 소설 속에만 남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책은 그 개인적인 기억의 앞뒤로 맥락을 붙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이야기는 옛이야기이기도 하고 새로운 이야기이기도 하다. 흑백사진과 오래된 신문, 도면 자료는 우리가 그 시절로부터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실감 나게 한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우리 주거 문화의 거의 모든 것"이다. 저자가 처음 쓰려 한 것은 "한국주택백과"라 한다. 이 책은 백과사전으로는 살짝 부족하지만, 치밀한 조사와 고증 덕분에 '거의 모든 것'이라는 수사가 무색하지 않다.

깊이와 넓이를 동시에 가지기는 쉽지 않다. 어려운 법률용어, 복잡한 전후 사정, 전문가의 세계를 일반인이 읽기 쉽게 풀어내기는 더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책은 그 어려운 과정을 해내겠노라 마음먹었고, 꽤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 그중 대부분은 오랫동안 주거건축의 문화사에 관심이 있었던 건축가인 저자의 능력 덕분이겠지만 한편에는 우리가 살면서 몸으로 겪은 집의 기억이 받쳐주고 있다. 더구나 아직 남아 있는 건물들은 현존하는 증거다. 홍은동 유진상가가 대전차 방어구축물로 지어진 일종의 군사시설이었다고? 한강변 고층아파트에 있는 창문이 몸을 숨긴 채 적을 향해 총을 쏠 수 있게 만든 '총안'이라고? 이 책을 읽고 나면, 무심코 지나쳐온 서울의 풍경이 다시 읽힌다.

'문화촌'에서 유아기를 보내고 '서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뒤 현재 '해방촌'에 살고 있는 나는 종종 농담 삼아 나를 '촌년'이라고 소개한다. 그러나 '촌'이라는 명칭이 구별 짓기 수단으로 붙인 별칭의 역사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니, 이 또한 새롭다. 한동네에 산다는 것은 수평으로는 이웃과 함께 사는 일이지만, 수직으로는 옛사람들과 만나는 일이다. 현재의 내 삶은 '삼팔따라지'들의 삶과 얼마나 멀어져 있을까.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글 **박사** 북 칼럼니스트.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책과 문화를 소개해왔다. 저서로 '가꾼다는 것'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가장 도시적인 삶'(황두진 지음, 반비, 2017)은 '상가아파트'를 다룬다. 도시의 활력을 위해서는 주거와 상업의 복합 기능을 갖춘 건물, 이른바 '무지개떡 건축'이 필요하다는 것. 한국 최초의 아파트인 충정아파트부터 타워팰리스, 유진상가, 그리고 해외 사례까지, 도시의 역사적 맥락을 짚고 공간과 사람의 관계를 쉬운 언어로 풀어냈다.



건축가 홍윤주가 지은 '진짜공간'(프로파간다, 2017)은 특정 공간에 사는 '사람'과 그들의 삶에 무게중심을 둔 책이다. 사람들은 제 삶의 방식과 편의에 따라 공간을 바꾸고, 그런 흔적이 쌓여 집과 골목의 풍경을 만든다. 흔히 '건축=건축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책에 실린 계단, 대문, 작은 골목, 간판의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건축=생활'임을 읽게 된다.

국립극장 창극아카데미 최여림 연출가

모두가 예술 안에서 행복하길 바라며

**음악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좋은 사람들과 창작하는 일을 할 수 있음에 언제나 감사했다.
누구나 이 기쁨의 순간을 맛볼 수 있도록 최여림 연출은 자신의 경험과 마음을 나누고 싶다.**

최여림 연출가는 예술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결코 당연한 미래로 상상하지 않았다. 초등학생 시절 연극에 참여한 기억이 특별하게 남아 그때부터 꾸준히 연극을 좋아했을 뿐이다. 그러다 대학교에 진학해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따라 연극 연출을 공부하면서 무대가 조금씩 의미 있게 다가왔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기획하고 만드는 활동이 즐거웠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일이 적성에 맞았다. 그가 무대 연출에 완전히 매료된 요인 중 하나는 '창작하는 기쁨'이다. 자신이 그린 세계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만나 실제로 무대에 꾸려지는 과정이 무척 재미있다고, 조금 들뜬 듯이 말했다. 사람들과 더불어 작품을 만들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어딘가로 열심히 나아가는 게 신기한 동시에 참 행복하다고.

"혹시 내게 재능이 없다면 누군가 말려주길 바랐어요(웃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작품을 할 때마다 조금 더 성장하길 원했고, 다음 작품에서는 새로운 무언가를 배웠으면 하는 욕심이 들었죠. 어쨌든 예술이란 게 사람에게 좋은 일이니 이번 생에는 가까이 있어보자고 다짐했어요."

최여림 연출가와 국립극장 창극아카데미의 인연은 2016년 처음 시작되었다. 당시 창극아카데미를 담당한 PD가 아이들을 무대에 올리는 작업에 적합한 연출이 필요하다고 그에게 연락해 왔다. 최 연출가는 판소리에 관해 감상자에 가까웠고 아이들이 듣는 수업에서 실질적인 진행을 하는 데 능숙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에게 맞는 수업을 위해 같이 뜻을 모아 멋진 결과를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 무엇보다 창극이라는 장르가 그를 단단히 이끌었다. 그는 창극의 고유성에 푹 빠졌고 작업을 하는 동안 강렬한 힘을 얻었다. 그렇게 그는 2년째 창극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성과 수료 공연의 연출을 책임지고 있다.

"국립극장 창극아카데미의 취지는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창극의 저변 확대예요. 재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판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기회예요. 저는 연출가로서 그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나이가 몇이든 어떤 일을 하든, 예술은 모든 이에게 꼭 필요하니까요."

최여림 연출가는 창극아카데미에서 아이들이 판소리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다소 놀랐다고 밝혔다. 평소 활발하게 뛰어놀던 아이들이 수업 시간이 되자 자리에 앉아 오롯이 판소리에 집중했기 때문. 수업 도중에 누가 들어와도 아이들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은 채 수업을 들었고, 집에 돌아가는 길엔 항상 '오늘도 너무 즐거웠다'라며 기뻐했다. 수강생들이 창극아카데미를 통해 국악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는 것을 실감한 그는 이런 수업이 다양한 사람을 위해 무척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삶을 반짝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전에 판소리 공연과 전통 연희극을 맡은 경험이 있어요. 전통악기 공연을 꽤 해본 편이죠. 그런데 창극아카데미를 2년 동안 하면서 새롭게 배운 게 정말 많아요. 저도 아이들처럼 이곳에서 수업을 받으며 공부한 것 같네요. 국립극장에 있으니 색다른 판소리 공연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시나리오를 써보고 싶은 욕심도 생겼어요. 직접 글을 쓰고 무대화하는 일의 매력을 알게 되었죠."

지난 창극아카데미 수료 공연도 최여림 연출가의 마음을 크게 울렸다. 그는 아이들이 정확한 소리를 뽐내며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도록 강사들이 헌신적으로 돕는다고 전했다. 그 애정 어린 관심이 무대에 드러날 때마다 깊은 감동을 받는다고. 이렇게 쌓인 아이들의 실력이 공연에서 더욱 돋보이도록 연출하는 건 그의 몫이다. 아이들과 공연의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관객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되짚어본다. 이때 주고받은 아이들의 대답을 무대로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자신의 역할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국립극장에서 국립관현악단과 '아빠 사우루스'라는 작품도 했어요. 10인 이상이 출연하는 제법 큰 규모였는데, 그 연주를 듣는 게 감사할 정도로 호사였어요. 훌륭한 예술인이자 강사들로 이뤄진 창극아카데미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호사를 국립극장을 찾는 분들에게도 누리게 해주고 싶어요. 편하게 음악을 감상하며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게 창작을 하는 저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술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공연을 만들며 예술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것도 좋죠. '어때 해보니까 재미있지?' 이런 느낌으로요.(웃음)"

글 **박효린** 좋아하는 것을 힘껏 좋아하기 위해 이불 밖으로 나온 기획자
사진 **전강인**

국립극장 창극아카데미

'국립극장 창극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창극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다. 안숙선 명창을 비롯한 각 분야 최고의 강사진에게 판소리·연극·한국무용 등 다양한 전통예술을 놀이처럼 재미있게 배운다. 입문반과 심화반으로 나누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마지막 수업에는 수강생들이 수료 공연 무대에 올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립극장 예술교육팀 02-2280-5812



국립극장 | 국립창극단

완창 판소리













3.24
4.21
5.26
6.23

국립극장 | 하늘

3월 | 김준수의 수궁가 미산제
4월 | 박애리의 춘향가 김세종제
5월 | 유영애의 심청가 강산제
6월 | 정신예의 심청가 동초제

예술감독 김성녀
해설·사설 김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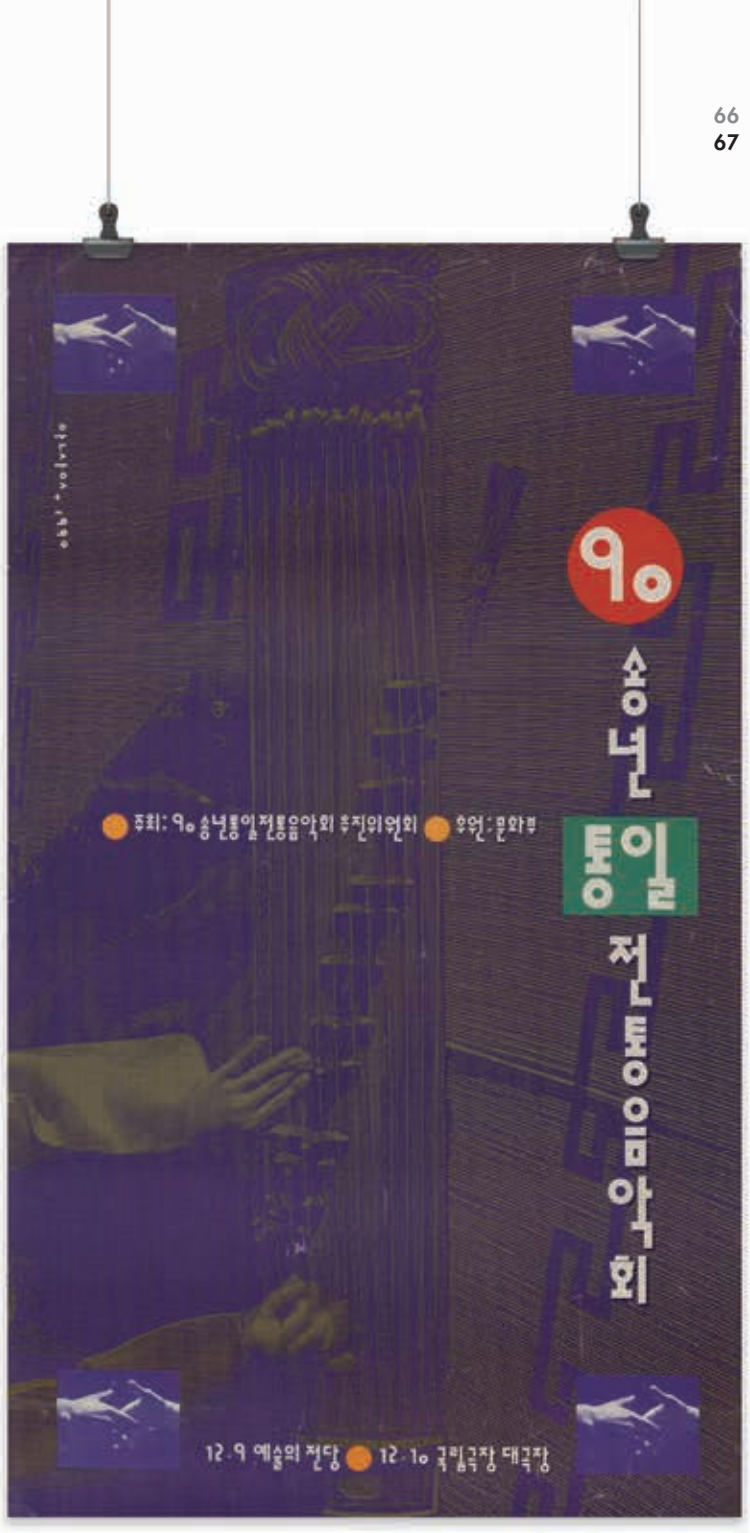
전석 20,000원

예매 및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THE COMPLETE PERFORMANCE OF PANSORI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7-2018

90 송년 통일전통음악회



1990년 남북한 문화예술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사가 진행됐다. 그해 10월에 열린 북측의 '범민족통일음악회'(10월 18~24일)에 이어 남측에서는 이에 화답한 '90 송년 통일전통음악회'(12월 9·10·12일)가 열린 것이다. 발기인으로 나선 작곡가 윤이상은 공연에 앞서 "통일을 염원하는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음악가들이 사상과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만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북한에서 열린 '범민족통일음악회' 공연을 위해 남측에서는 황병기 단장을 중심으로 예술인 13명이 참가했고, '90 송년 통일전통음악회' 공연에는 북측 성동춘 단장을 포함 28명이 참가해 남북 예술 교류에 새로운 성과를 남겼다.

1990년 12월 10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90 송년 통일전통음악회'는 총 2부로 나뉘어 공연됐다. 1부에서는 북측 평양민족음악단이 여성민요연곡·단소독주·옥류금독주를 비롯해 '능수버들' '통일의 길' 등의 민요독창과 '신고산타령' 등의 민요중창을 선보였다. 2부에서는 남측의 국립국악원·국립창극단·중앙국악관현악단 등이 참여해 '대취타'와 '한오백년' 등의 민요 메들리를 비롯한 창극 '춘향전'과 대금독주 '상영산', 관현악 '사물놀이와 관현악을 위한 신모듬' 등을 공연했으며 마지막은 모든 출연진이 무대에 올라 아리랑 합창으로 장식했다.

글 **설인재**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학예연구사

공연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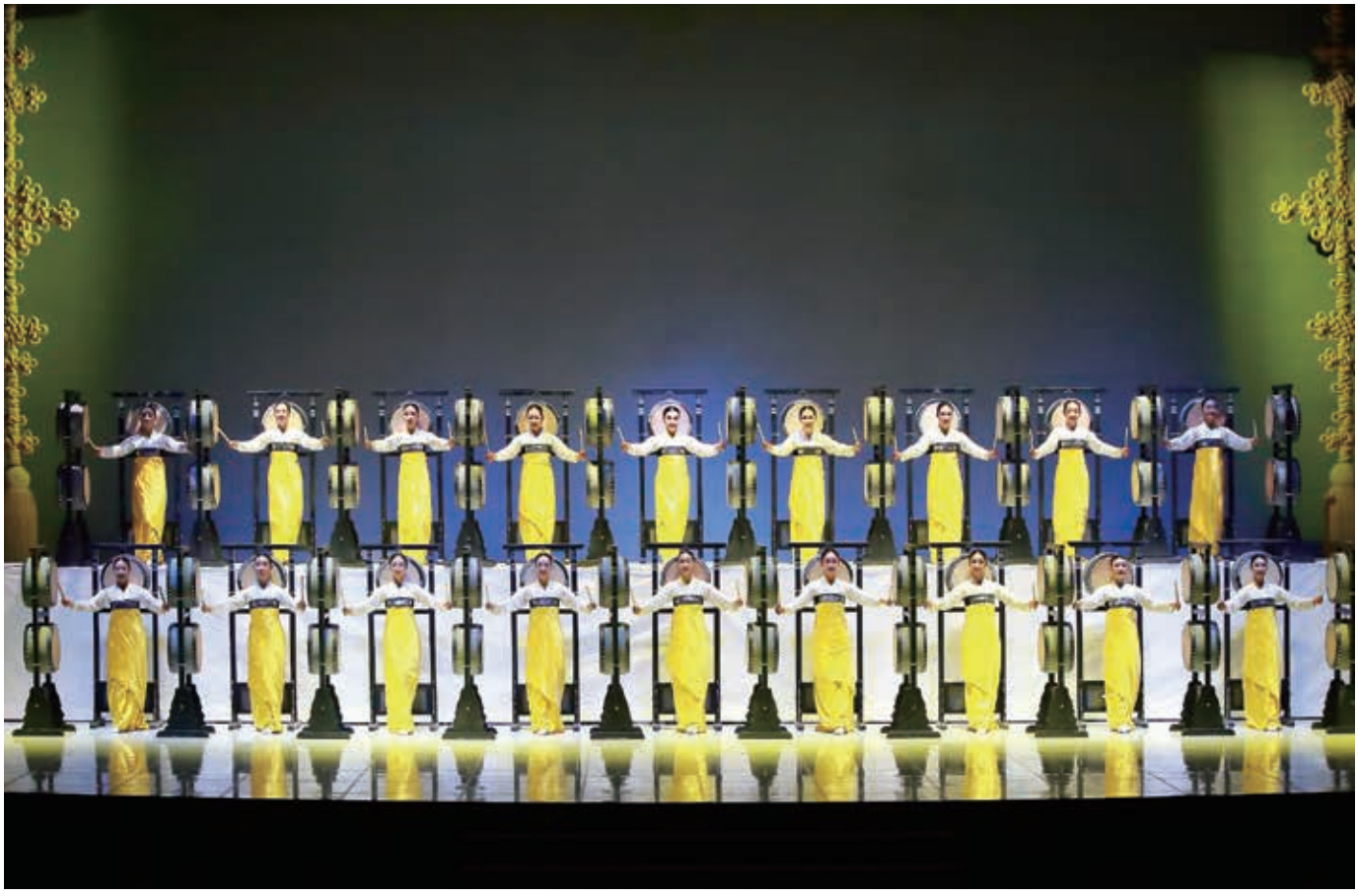
공연일자 1990년 12월 9·10·12일
공연장소 국립극장 대극장
제작진 90 송년 통일전통음악회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황병기)
주요 출연진 남측: 이춘희·박용호·국립국악원·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중앙국악관현악단 등
북측: 김관보·김길화·김진명·리성훈·리순화·백영희·배윤희·승영희·전동환 등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이용 안내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은 국립극장 전속단체의 공연 자료를 중심으로 총 21만여 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archive.ntok.go.kr)에 접속하면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박물관 소장 자료를 어디서든 쉽게 검색·열람할 수 있다.

문의 공연예술자료실(방문이용) 02-2280-5834
공연예술디지털아카이브(온라인) 02-2280-5805

3월의 주요 소식



국립무용단 제132회 IOC 총회 개회식 문화공연 및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참가

국립무용단이 2월 5일 강릉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제132회 IOC 총회 개회식 문화공연에 초청돼 무대에 올랐다. 국립무용단의 '향연' 중 오고무 공연으로 개회식 문화행사의 시작을 알리며 개최국으로서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환영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IOC 총회 개회식에는 위원들을 비롯한 IOC 측 인사 200여 명과 정부 인사가 초청됐다. '한국의 흥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문화행사는 국립무용단의 오고무를 시작으로 태권도 퍼포먼스팀 K타이거즈·K팝 그룹 빅스·해금 연주자 이승희와 생황 연주자 윤형욱, 그리고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공연했다. 오고무 공연은 우리 가락의 진수를 보여주며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무대를 펼쳤다는 평을 받았다.

이어 2월 9일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는 국립무용단의 박혜지 단원이 단군신화 속 웅녀 역으로 출연했다. 이번 개회식은 강원도 산골 아이들이 대한민국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을 한다는 서사 구조를 통해 고대 문화에서부터 현대까지의 흐름을 보여주는 구성으로 진행되었으며, 박혜지 단원은 고대 문화예술에 어린 평화의 꿈을 보여주는 역할로 많은 화제를 모았다. 웅녀는 하늘과 땅, 인간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조화와 상생의 세상을 함께 이뤄내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전통문화에 깃든 한국적 아름다움을 오롯이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립무용단 '리진' 이데일리 문화대상 무용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7년 6월 초연한 국립무용단 '리진'이 지난 1월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회 이데일리 문화대상에서 무용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데일리 문화대상은 국내외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연극·클래식·무용·국악·뮤지컬·콘서트 총 6개 부분에 대한 수상이 이뤄진다.

'리진'은 국립무용단이 2012년 '그대, 논개여' 이후 5년 만에 선보인 무용극이자 지난해 10월 취임한 김상덕 예술감독이 안무를 맡은 첫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수년간 이어온 한국무용의 현대화 작업이 '리진'에서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결실을 보고, 정체한 한국 무용극의 돌파구를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리진'에 대해 "한국무용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객석을 다 채울 정도로 대중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한국무용이 찾아야 할 모든 가치를 채운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김상덕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은 "리진은 한없이 나약한 여인으로서 역사의 그 광포함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예술가"라며 "왜곡과 질시와 폄하로 뒤엉킨 현실을 무용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각해 무용극의 장르적 발전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늘 함께 힘써주는 국립무용단 단원 모두와 이 영광을 나누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을 위한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국립극장에서 열려

지난 2월 11일 국립극장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로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공연이 열렸다. 2월 8일 강릉 공연에 이어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린 삼지연관현악단 공연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여정 등 북측 대표단을 비롯해 정·재계, 종교계, 문화계 등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사전 추첨을 통해 당첨된 일반 시민 관객이 이날의 역사적인 공연을 관람했다. 현송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한 북한 예술단 137명은 북한 가요 '반갑습니다'로 시작해 '사랑의 미로' 'J에게' 등을 엮은 한국 가요 메들리와 '카르멘 서곡'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등의 클래식을 선보였다. 약 1시간 40분간 진행된 공연의 말미에 북한 여성 중창단과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서현이 함께 부른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였다. 객석의 기립박수가 이어졌고 1,550명 관객의 눈시울을 적셨다.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2018 국립극장 '오감오락 음악여행단' 개강

국립극장의 어린이 예술교육 프로그램 '오감오락 음악여행단'이 3월에 문을 연다.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국악기는 물론 쉽게 접하기 힘든 국악기와 우리음악을 학습할 수 있는 '오감오락 음악여행단'은 연 3회(3월·5월·8월) 진행되는 정규반과 일일체험이 가능한 특별반(상시)으로 운영된다.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판소리공장 바닥소리의 전문적인 연극놀이 수업을 바탕으로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생생한 연주와 함께 직접 악기를 체험할 수 있다. 매 기수 매우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존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재수강률 또한 높다.

2018년 '오감오락 음악여행단' 1기 수업은 3월 3일(토)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수강료는 4만 원이다. 정규반의 가장 인기 있는 두 번째 차시는 일일체험 특별반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단체 신청으로 참여가 가능하다(일정은 별도 문의). 주말 혹은 방학을 이용해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체험을 계획 중이라면 '오감오락 음악여행단'을 놓치지 말자.

문의 국립극장 예술교육팀 02-2280-5823


국립극장
National Theatre Live
★★★★
정말 재밌다
The Times
★★★★
눈부신 기교
Metro
FROM THE OLD VIC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
원작 톰 스토파드 연출 데이비드 르보
2018
3.31
|
4.1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7-2018
일시
2018.3.31-4.1
15:00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주최 | 국립극장
제작 | 영국 국립극장
올드 빅 씨어터
티켓 | 전석 20,000원
관람연령 | 12세 이상
예매 및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인터파크 1544-1555
티켓링크 1588-7890
BY
ARTS COUNCIL ENGLAND
Photograph by Helen Maybanks

국립국악관현악단 악보계 배새롬

그녀의 이중생활

1,000세트가 넘는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악보 천국,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악보는 그녀가 접수한다.



오전 10시. 연습을 앞두고 사무실과 연습실 사이를 정신없이 오가며 바삐 움직이는 그녀가 있다. 단원 50여 명의 보면대 위에 악보를 하나하나 챙겨놓더니 그새 키보드 앞에 앉아 있다. 빨갛게 상기된 앳된 얼굴의 그녀는 국립국악관현악단 11년차 베테랑 악보계 배새롬. 영어로는 Librarian. 도서관의 사서처럼 오케스트라마다 악보를 담당하는 악보계가 있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악단 아래 3명의 악보계를 두고 있을 만큼 그 역할과 임무는 다양하고도 과중하다.

"연습이 있는 날이면 연습이 시작되기 2~3시간 전에 출근해 50여 명의 파트별 악보를 정리해서 보면대에 올려놓고 연습이 끝나면 정리해서 보관합니다. 건반이 필요한 곡이 있을 때는 악단에서 신시사이저를 담당하기도 해요. 첫 연습이 있는 날 아침에는 정말 정신없어요. 새벽까지 작업하시다 악보를 보내시는 작곡가분들도 종종 계셔서 막 나온 따끈따근한 악보를 악기별 파트보로 나누고 편철을 해서 단원들 보면대에 세팅하고 나면 오전 시간이 훅 지나가요. 피날레·시벨리우스(악보 프로그램)가 흔히 사용되기 전, 손사보(손으로 악보를 직접 기록)할 때는 악보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옮겨 담는 작업까지 했죠. 서양음악 기보에 최적화되어 있는 악보 기보 프로그램에는 현대음악이나 국악에서 쓰는 특수기호가 없어 마우스로 직접 그려 넣기도 하죠. 극장에서 2박 3일 꼬박 작업할 때도 비일비재했어요."

'정오의 음악회'의 가장 인기 있는 '이 음악이 좋다' 코너에서 연주되는 협연곡들은 거의 그녀의 손을 거쳐 편곡된다. 악보를 관리하는 일이 연주에 악기만큼 중요하기에 에피소드도 많다. "입사 초기에 문경으로 지방공연을 갔어요. 악보를 챙기다 보니 피리 파트보를 잊어버리고 안 가져온 거예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단원들이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셨어요. 사무실에 있는 직원에게 급히 연락해 악보를 메일로 받아 연습할 수 있었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해온 단원에 대한 그녀의 깊은 애정이 느껴졌다. 악보 만들 때도 악기별 특성을 고려해 악보를 넘기기 쉽게, 보기 편하게 사이즈와 간격을 조정하고 편집하는 등 연주자인 단원들의 편의를 늘 염두에 두고 작업하고 있었다. 힘든 순간을 견딜 수 있는 힘도 단원들로부터 얻는다고 한다.

1,000곡 이상의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악보실은 그야말로 악보 창고다. 여기저기서 악보를 요청하는 일이 많아 행정적으로 대응하는 일도 그녀의 업무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번 연주된 악보는 다음에 찾기 쉽게 정리하고 보관해야 해요. 연습실과 악보실이 뜰아래 연습동으로 이전하면서 5명이 달라붙어 장장 5일 동안 악보 정리만 했죠."

그녀는 가장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공연으로 2012년에 공연한 '작곡가 시리즈'를 꼽았다.

"작곡가 이해식·강준일·김영동 선생님 작품을 3일 연속해서 올렸어요. 한 작곡가의 작품세계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 좋았죠. 개인적으로 좋았던 공연은 관객 반응이 느껴진 공연인데 그런 공연은 기획에서부터 달랐던 것 같아요. 시도되지 않은 색다른 공연이었고, 연습 과정도 너무 힘들고 불편했는데 그 불편함을 해결하고 무대에 올랐을 때 보람을 느끼게 돼요. 관객들도 그걸 알아주는 거 같더라고요. 단원들 간의 앙상블이 무척 좋았거든요. 강준일 선생님의 '소리그림자 No.2'에서는 정말 '시각의 청각화'를 경험했어요."

악단에서 건반을 맡고 있는 단원으로서 무대에 오르고 막이 내리면 뜨거움을 안고 다시 사무실 책상에 앉아 '모드 전환'하고 악보를 그리고 행정 사무를 병행해야 하는 이중적인 삶. 하지만 모든 게 서툴렀던 미생 시절부터 함께해온 동료와 단원들을 향한 애정, 그리고 그들과 무대에서 짜릿하게 함께 호흡하는 순간의 에너지가 원동력이 되기에 그녀의 이중생활(?)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 같았다.

글 **박혜은** 국립극장 홍보팀 | 사진 **전강인**



맺음

PHOTO ESSAY

타인의 열정을 곁에서 지켜보는 건 설레는 일이다.
덩달아 두근거리며, 속에서는 왠지 모를 동기 부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아마추어 관현악단'의 연습 과정이 바로 그러했다.

생업에 종사하며 좋아하는 일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내 열정을 쏟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은 남들 퇴근하는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연습을 시작할 수 있었고,
미처 일을 못 끝낸 사람도, 집안일이 한 짐인 사람도 예외 없이
연습실에 모여 앉았다.
보통을 넘어선 열의와 집념을 보여주었다.

'아마추어 관현악단'은 단순히 공연을 위해 연습한 것이 아닌,
그들 속에 숨겨진 날개를 펼치는 과정을 함께 해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공연은 관객들 마음속에 숨겨진 날개를 꿈틀거리게 했다.

글·사진 **전강인** 국립극장 사진가

'맺음'은 단순한 끝이 아닌 '이음'입니다.
한 장의 사진을 쉼표 삼아 국립극장은 또 다른 공연을 준비합니다.



국립창극단 김지숙

독 자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휴대전화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9.12.31.

서울중앙우체국 승인
제40370호

국립극장 미르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극장 월간「미르」담당자 앞

0 4 6 2 1



3월호 독자의견

의견을 보내 주시면 추첨하여 공연 초대권 등 선물을 드립니다.

---

01 「미르」를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02 이번 호에서 유익하거나 재미있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03 「미르」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립극장 | 국립국악관현악단

리컴포즈 X 상주작곡가

RE COMPOSE


지휘
성기선


상주작곡가
강은구


상주작곡가
최지혜

RESIDENT COMPOSERS


리컴포즈
김보현


리컴포즈
니키 손

CONCERT

2018.3.23.
금 20시
국립극장 달오름

예술감독
임재원

관람료
R석 40,000원
S석 30,000원

관람연령
8세 이상

예매 및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www.ntok.go.kr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interpark.com

티켓링크
1588-7890
www.ticketlink.co.kr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7-2018

국립극장 | 국립창극단



창극

심청가

SHIMCHEONG-GA

대본·연출 손진책
작창·도창 안숙선

2018
4.25
—
5.6

명동예술극장

월·수·금 20:00
목·토·일 15:00
(화 공연없음)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김성녀

R석 50,000원
S석 35,000원
A석 20,000원

예매 및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국립극단 1644-2003
인터파크 1544-1555

주최 (재)국립극단 국립극장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7-2018